

시  
문  
집  
내  
빈  
정  
신

## 聞 變

-나라 팔아먹은 놈 나라 위해 죽었던가-

한강은 울먹이고 북악산은 찡그리는데  
세갓집 벼슬아치는 의연히 뻑뻑하구나  
청하노니 역대의 간신전을 읽어 보소  
나라 팔아먹은 놈 나라 위해 죽었던가

해설 : 梅泉 黃 玹 (1855~1910)

출전 \_ 《梅泉集》

매천 황현 선생이 망국의 한을 끌어안고 1910년 자진순국하며 남긴 절명시편 중 한편이다. 망국 선비의 슬픔을 비분강개하며 노래하고 있는 이 시는 국권이 일제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만 비탄 그 자체일 것이다.

특히 '나라 팔아먹은 놈 나라 위해 죽었던가' 라고 당대의 역사에 묻는 시구가 우리들의 가슴을 서늘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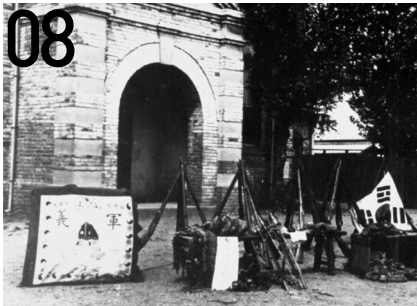
■ 시선정 : 홍일선 (시인, 한국문학평화포럼 회장)

2011 5\*6

통권 57호

# 독립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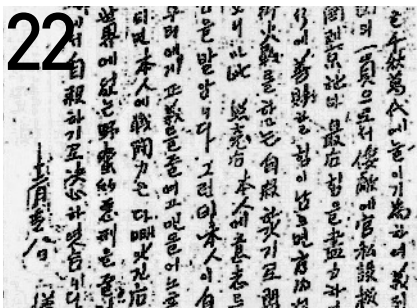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 받고자 합니다.



04 권두언 \_  
5.16 쿠데타 50년, 그리고 일제침략 백년  
| 임재경



06 연간기획 \_  
향조국진군!(向祖國進軍), 청산리 독립전쟁  
| 김을동



12 독립운동 \_  
순국선열 나석주 의사의 항일 독립투쟁  
| 김상옥 · 나석주 의사 기념사업회

23 특별기고 1 \_  
용서는 할 수 있어도 과거를 잊지 말자  
| 김자동

27 특별기고 2 \_  
국군의 정체성 바로 세우자  
| 표명렬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김학민  
편집위원 | 이두엽, 신명식, 신준수, 김지용, 이재승, 이학로, 이일선, 김봉현, 류동연  
편집·디자인 | 동방기획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33 광화문 어귀에서 \_  
5.16은 한국사회를 어떻게 피폐화 시켰나  
| 이부영

37 특집 \_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한국 근·현대사」와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비교 분석  
| 신진균

49 레지스탕스 영화읽기 \_  
영화 <색,계>,역사와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조건  
| 이두희

53 100년편지 \_  
벽초(碧初) 선생님께

57 독립정신 이모저모

59 임정서가 \_  
고난과 희생에 찬 애국애족의 한평생  
안중근 의사의 친필을 담다



■ 권두언

# 5.16쿠데타 50년, 그리고 일제침략 백년



임재경  
(前 한겨레 신문 부사장)

역사를 말할 때 1백년과 50년의 차이는 무엇일까. 시간의 길고 짧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반세기는 한 세기의 절반이고 오늘의 시점에서 본다면 1백년은 50년보다 더 오래된 옛날이란 답이 나오직하다. 하지만 역사의 특정시기를 이처럼 거칠게 구분해버리는 법은 없다. 더구나 우리 현대사 1백년과 50년을 물리적 시간의 장단으로 설명하는데 만족할 사람은 드물 줄 안다. 왜냐면 1세기 전인 1910년은 일본이 한반도를 온갖 악랄한 방법을 다 써 병합한 시기이고, 반세기 전인 1961년은 제국주의 일본의 괴뢰인 만군 출신 박정희가 4.19혁명으로 출범한 정부를 뒤엎고 권력을 탈취한 해이기 때문이다.

2011년 봄 오늘 반세기 전 5.16쿠데타를 거론하고자 할 때는 그 전사(前史)에 해당하는 일제 식민지 지배, 그에 저항한 나라안팎의 광복운동, 8.15해방과 6.25전쟁, 그리고 마지막으로 4.19혁명과의 관계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5.16쿠데타 주모자인 박정희(1917년생)는 일제하 경상북도에서 태어나 거기서 성장기를 보낸 뒤 대구사범학교를 나와 잠시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교사를 지냈



다. 그 때 실정으로는 비교적 안정된 직장인 국민학교 교사직을 팽개치고 만주군관학교를 거쳐 특별히 선발된 자격으로 일본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간 것은 일제말기 징병을 회피하려고 몸부림치던 젊은이들에 견주어 아주 이례에 속한다. 제국 일본의 괴뢰 만주군 장교로서 해방시점까지 몇 해 동안 중국 동삼성에서 그가 한 일은 일본 용병으로서 항일 비정규군을 ‘토벌’ 하는 것이었다. 중공(중국 공산당) 8로군 항일 게릴라 주력이 1942-3년에 이르러 화중(華中)으로 이동함에 따라, 만주 괴뢰군은 소규모 산발적으로 전개되는 한국독립군 빨치산 군사행동을 저지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그러므로 20대 군인 박정희는 만군 일원으로 한국독립군을 분쇄하는데 몰입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권력 장악 4년 뒤인 1965년 대통령으로서 박정희가 한 일은 한일협정을 체결한 것인데, 이것은 일본 자본을 끌어들이어 일본식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구하려는 것이었다. 근대사회의 기본 인권(신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을 극도로 제약하면서 강행한 그의 성장정책이 국민 다수의 반대에 봉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그런 가운데 1967년에는 헌법상 대통령 연임조항(2차만 가능)을 고쳐 그(박정희)에게만 3선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이른바 ‘3선 개헌’을 법치주의와 민주절차를 짓밟으며 처리했다.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병법 초보상식을 행동에 옮긴 것인데, 민심이 이반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강수의 약발이 오래가지 못함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입증한다.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종당 무너지고 말았지만 제정 러시아와 군국주의 일본의 강압적인 인민지배는 로마노프왕조의 장기 군임(君臨)과 천황제 신도주의(神道主義)라는 위광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점이다.

역사적 정통성과 주권재민이라는 민족·민주 명분을 갖추지 못한 박정희가 1972년 10월 마침내 일본의 <명치유신>에서 유신(維新)이란 두 글자를 따온 두 번째 쿠데타를 감행했다. 내놓고 ‘나 박정희는 일본근대 천황제도와 군국주의 적자(嫡子)를 자임하노라.’ 한 덕이다. 하지만 비극은 그 혼자서 메이지 천황과 도조 히데끼[東條英機]의 두 가지 역을 동시에 행하려 했던데 있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는 남북 분단이라는 민족 천추의 한을 영구집권 구실로 악용했고 이런 소행은 그로부터 40년 세월이 지난 오늘날에 이르러서도 모방효과(demonstration effect)를 십분 발휘한다.

일체침략 백년을 청산하기는커녕 그 부(負)의 유산을 체현한 5.16쿠데타 일당과 그 후계 세력은 한편으로 국민을 짓밟고 다른 한편으로는 바보로 만드느라 유난을 있는 대로 떨었지만, 우리 국민은 어리석거나 겁쟁이는 아니었다. 박정희, 전두환 폭압 아래서 학생과 노동자, 지식인과 보통시민들은 감연히 일어나 저항했고 그것은 5.18 광주항쟁과 6월 항쟁에서 두고두고 찬연히 빛난다. 1백 년 전 역부족하여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맨주먹으로 민주주의를 되찾은 한국을 지금은 일본이 배워야 할 차례다. (㉞)

| 연간기획 |

# 향조국진군! (向祖國進軍), 청산리 독립전쟁



김을동  
사단법인 백야 김좌진장군  
기념사업회 회장, 국회의원

## 왜 '청산리 대첩' 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청산리 대첩'은 민족자존의 상징이자 암울했던 일제강점기를 버티게 해준 한 줄 찬연한 빛이었다. 한민족의 정신사를 이야기 할 때 청산리 대첩이 하나의 전투 전례로 종결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단순한 군사적 무력시위나 저항의 차원이 아니라 투쟁의 상징이자 어두움의 끝이 있다는, 그것을 민족자결의 의지로 찾아 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래서 '민족'이라는 용어와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사실 '청산리 대첩'에 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셈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전의 중국 동북 쪽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경우 '동북항일연군'의 활동 전초에 민족운동을 끼워 넣기 위한 억지성으로 말미암아 왜곡되기 십상이었다. 거기에다 이들 연구와 일제의 사료를 텍스트로 사용한 일부 국내학자들에게서

는 좌파적 시각에 경도되거나 지도자의 능력과 리더십을 무시하고 폄훼하는 현상까지 불러왔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백야가 너무 일찍(41세) 서거함에 따라 자신의 육필로 기록을 남기지 못했다는 점이다. 북만주 최대의 거목 백야 김좌진의 생생한 목소리가 남았다더라면 가장 열악한 가운데 가장 치열했던 1920년대에서 30년대의 만주 독립운동사는 더 명증한 사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산리 대첩’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민족자존의 상징으로 위상 지워져 있음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것이 시대를 뛰어 넘어 ‘청산리 대첩’을 주목하고 되새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 김좌진 장군 영정

## ‘청산리 대첩’ 전야

1919년 3월 1일 이후 일제는 만주의 조선인들을 더 주목하게 된다. 3·1운동 이후 국내에서는 추동력을 상실한 항일무장운동 세력이 만주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눈에 거슬렸던 것이다.

1920년 현재, 동만주만 하더라도 김좌진(총사령관)이 지휘하던 ‘북로군정서’를 비롯하여 ‘대한 국민회 독립군’, ‘대한 독립군’, ‘대한군무 도독부군’, ‘대한 의군부’, ‘훈춘 한민회’ 등 많은 열혈 독립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무장투쟁에 더 큰 의미를 둔 단체들이었다. 그러나 일제에게는 이들이 활동하던 지역이 엄연히 중국영토였기 때문에 선불리 군사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그래서 발생한 사건이 ‘훈춘사건’이었다.

‘훈춘사건’은 훈춘에 있던 일본영사관에 희생을 가져 오게 함으로써 출병의 구실을 만들고자 한 계략이었다. 1920년 9월 12일 흑룡강성 동녕현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친일비적으로 하여금 일본 영사관에 대한 공격을 가하게 하였다. 하지만 일본인들에게는 전혀 손실을 주지 않은 채 중국인과 한국인들에게만 피해를 입히고 물러났다. 일본인에게는 피해가 없으니 군대를 파견할 구실을 만들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10월 2일 훈춘성을 재차 공격하게 하였다. 당시 지역의 「길장일보」에 의하면 ‘일본영사관에 불을 지르고 일본 경찰 1명, 일본인 11명, 한인(韓人) 6명을 살해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영사를 비롯한 경찰 등 주요

## | 연간기획 |



▲ 청산리 독립전쟁에 쓰인 무기류

일본인들은 1명도 없었고 은화를 비롯한 엔화 등 태환화폐는 1전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사실상 일제는 훈춘 사건 이전인 1920년 8월에 이미 '간도지방 불령선인초토계획(間島地方 不逞鮮人剿討計劃)'을 수립, 기획만 엿보고 있던 차였다. 이 계획에 의거 나남에 주둔하고 있던 19사단을 주축으로 조선주둔 20사단의 절반, 시베리아에 출병 중이었던 13사단 혼성여단, 역시 시베리아 14사단과 11사단의

연대를 포함한 다섯 개의 사단, 도합 5만여 명이 넘는 대부대를 동북지역으로 출병시킨다. 마침내 동북지역의 독립군과 일제 간에는 피할 수 없는 한 판 승부를 치르게 된 것이다.

당시 백야 김좌진이 지휘하는 북로군정서는 길림성 왕청현 서대파(吉林省 汪清縣 西大坡)에 있었다. 북로군정서의 전신인 '대한정의단'은 대중교 계통의 무장단체인 '중광단(총재 서일)'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전략적 지식이나 군 통솔 능력의 부족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하던 때, 김좌진의 명성을 듣고 정중히 초빙, 마침내 날개를 단다. 불과 1년여의 시간 만에 2,000여명에 달하는 병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백야 휘하의 참모진으로 나중소를 비롯하여 이장녕, 박영희, 이범석, 이민화, 김훈, 백종렬, 김찬수 등 쟁쟁한 인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다. 그리고 십리평에 사관연성소를 세우고 정예 요원을 양성했다. 거기에서 시베리아에서 철수하던 체코군에게 야포와 기관총을 비롯한 소총과 실탄을 구입하여 무장할 수 있었으니 명실상부한 정예부대로서의 면모를 지닐 수 있었다. 양병에서 용병에 이르는 모든 '전투임무'는 총사령관인 백야가 담당을 하고 '전투근무지원'은 총재인 서일이 담당하는 시스템까지 갖추었다.

## 아! 청산리 대첩

일본의 토벌 정보는 독립군에게 고스란히 노출이 되고, 마침내 대규모 토벌대와 정면 대결보다는 전투

력을 보존하지는 의견이 우세하여 모든 독립군들은 백두산으로 집결, 권토중래를 꾀하게 된다. 그 과정에 벌어진 전투가 '청산리 대첩'이다. '청산리 대첩'은 단 한 번의 전투를 일컫는 말이 아니다. 1920년 10월 21일 오전 8시, 화룡현 백운평에서 첫 총성이 울린 후 10월 26일까지 천수평, 어랑촌, 맹개골, 만기구, 천보산, 고동하곡 등지에서 10여회의 대소 전투가 있었다. 이를 한꺼번에 일컬어 '청산리 독립전쟁' 혹은 '청산리 대첩'이라 부른다.(일반적으로 '청산리 전투'라고 부르기도 한다.)

첫 전투지인 백운평 전적지는 백운평에서 다시 서쪽으로 3.3km 정도 더 들어 간 배개봉 기슭의 직소 부근이다. 이곳은 뱀 자국처럼 외길로 통과할 수밖에 없는 지형이었다. 일제의 야마다【山田】연대의 주력은 북로군정서의 꼬리를 따라 들어 왔다. 백야는 편의대 운용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해 거짓 정보를 흘렸다. 한인들로부터 '독립군 부대는 소규모에 지리멸렬 일보직전의 꼴을 하고 방금 지나갔다.'는 거짓정보를 접한 야마다 연대의 전위병력 200여명(야스가와【安川】소좌가 지휘)은 아무 의심 없이 매복지점으로 진입했다. 그러나 좌우와 중앙에 3면으로 매복진지를 배치한 독립군의 화망에 걸린 순간 30분도 안 되어 적은 전멸하고 말았다. 그러자 뒤따르던 야마다 연대 주력이 투입되었으나 3면 공격에 예비까지 이미 전개된 독립군의 화망을 벗어 날 길은 요원했던 것이다. 결국 시체도 수습하지 못한 채 본영으로 퇴각하고 말았다. 이것이 청산리 전투의 서막이었다. 한편, 독립군은 야마다 연대의 본진을 추격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도구 방향으로 즉시 이동하는 길을 택했다. 그것은 일본군이 별동 기병연대 등을 선봉으로 퇴로를 차단하고 대규모 공세를 펼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백야의 이 같은 판단은 적확(的確)했다.

다음날인 22일 새벽, 백운평을 떠나 20시간에 걸친 강행군 끝에 도착한 곳은 이도구 갑산촌이었다. 주민들이 십시일반 정성으로 마련해준 음식으로 막 허기를 면하려는 순간, 주민들로부터 일본군 기병대가 30리 밖의 천수평에 주둔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백야는 정면 돌파를 택했다. 참모장 나중소를 필두로 여행대를 전위에 세운 북로군정서는 일본군이 순찰병력 몇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잠에 빠진 것을 확인하고 기습 섬멸하기로 했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4명이 가까스로 도망을 간 것 외에 116명 전원이 몰살당하고 만다. 이것이 두 번째 전투인 천수평 전투다.

살아 돌아 간 4명으로부터 독립군의 실태를 알게 된 동지대 본부는 가노(加納) 기병연대를 선두로 천수평으로 대규모 부대를 이동시켰다. 한편 군정서군은 이번에도 마을 뒷산을 넘어 야계골로 들어가 고지를 선점했다. 일본군도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인마를 몰아 세웠지만 시간 싸움에서 또다시 독립군에게 지고 만다. 그러나 5천이 넘는 병력과 기병, 야포대대를 동원한 화력전에 북로군정서도 고전을 치를 수밖에 없

## | 연간기획 |

었다. 이 절체절명의 시간에 나타나 준 것이 홍범도가 지휘하던 독립군 연합부대였던 것이다. 양면공격이 시작되자 적들의 기세는 한풀 꺾였고 이윽고 야음이 찾아 왔다. 이때를 이용해 백야는 축차적으로 병력을 안도현 방향으로 철수시켰다. 이 전투가 ‘어랑촌 전투’다. 이 전투에서 일본군은 연대장을 비롯해 1,600명의 사상자를 내고 대참패 한다.

다음날 아침 ‘황구령’으로 이동 중 ‘맹개골’에서 일본군 기병대가 골짜기로 진군하는 것을 발견하고 30여 인마를 사살했으며, 다시 ‘맹개골’에서 약 20여리 떨어진 ‘만기구’의 후방 산림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전방에 나타 난 보병 100여명을 발견, 총격을 가하여 30여명을 사살하고 나머지는 패주 시켰다. 그렇게 짧은 휴식과 기동을 지속하며 또 하루를 넘기고 ‘쉬구’로 향하던 중 전혀 경계 태세 없이 방심한 채로 군정서군이 있는 방향으로 다가 오고 있던 일본군을 기습사격으로 섬멸한 것이 ‘쉬구 전투’다.

그리고 군정서의 1개 중대로 하여금 이범석의 지휘 하에 ‘천보산’ 서남쪽 은동광 지역을 수비하고 있던 일본군을 역습하게 한 공격전이 ‘천보산 전투’이다. ‘고동하 전투’는 ‘송화강’ 수계인 ‘고동하’ 일대에서 독립군 연합부대가 청산리 전투의 대미를 장식한 마지막 전투였다. 일본군이 25일 밤 홍범도 부대를 발견하고 야습을 감행했으나 인접한 연합부대와 국민회군 등이 협공, 적 2개 소대이상 100여명을 섬멸한 전투다.

이 기간 동안 공식적인 기록만으로 봐도 일본군은 3,3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독립군은 350여명의 사상자만 낸 대승이었다. 병력과 장비는 물론, 보급도 절대 열세였던 독립군이 15배가 넘는 일본군을 맞아 10배의 피해를 준 이 전투는 메이지유신 이후부터 태평양 전쟁 이전에 기록된 일본군의 모든 전투 중 가장 처절한 참패로 기록되어 있다.

## 청산리 대첩의 승인과 의의

청산리 대첩은 승인과 패인이 극명하게 갈려지는 전투였다. 승인을 분석해 보면 먼저 백야의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다. 참모진들의 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견 존중, 사흘 밤낮을 자지 않고 진두지휘한 강철 같은 체력과 술선수법, 적의 야포소리에 움츠려 드는 부하들을 향해 이른 새벽 마을 물레방아 소리라고 둘러대며 부하들을 안심시키는 대범함 등은 그가 왜 젊은 나이에 만주 최고의 야전 사령관이 될 수 있었는가를 보여 주는 산 증거다. 두 번째는 우수한 참모들이다. 참모장 나중소를 비롯해 10여년이 연상이면서도 충성스럽게 묵묵히 옆을 지킨 비서 이정에 이르기까지 일사분란하면서도 신명을 바쳐 제 역할을 다해준 참모들의 역할도 빼 놓을 수 없다. 세 번째는 철저한 전술적 행동이다. 속도와 선점, 매복과 기습이



라는 전쟁원칙적인 측면은 물론 기  
만과 은폐 엄폐, 기도비닉과 경계  
등 전술행동도 모든 상황에서 일본  
군을 압도했던 것이다. 물론 이는  
평시의 철저한 교육훈련과 명령 지  
시가 먹히는, 군기가 살아 있는 군  
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뺄 수  
없는 요인이다. 네 번째는 '애국심'  
으로 표현될 수 있는 전투의지다.  
모든 장졸들이 목숨을 초개와 같이



▲ 청산리 전투 승전기념

버릴 수 있는 감투정신으로 무장되  
었기 때문에 전투력이 극대화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빼 놓을 수 없는 요인이 바로 조선  
민초들의 지원이다. 그들은 총탄이 빗발치는 전선까지 주먹밥을 날랐고 찬바람이 살을 파고드는 북만주의  
늦가을임에도 자기 적삼을 벗어 독립군들에게 걸쳐 주었던 것이다.

반면 일본군의 경우 전술적 미숙이 주요원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만심과 '경적필패  
(輕敵必敗)'의 무서움을 모르는 부실한 준비가 가장 큰 패인이었다. 독립군은 중국군이나 러시아군과는  
차원이 다른 군대였음을 간과했던 것이다.

청산리 전투 이후 독립군들은 북으로 행군로를 돌려 '밀산(密山)'으로 집결하고, 광분한 일본군이 주민  
들에게 보복을 자행한 '경신대참변(庚申大慘變)'이 발생한다. 그러함에도 광복의 그 날까지 항일의 기세  
를 꺾지 않았던 만주와 중국의 항일투사들은 민초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독립을 쟁취 한 정신적 대강(大綱)  
으로 연연히 살아 있었던 것이다. 백야가 북만주의 풍찬노숙을 기꺼이 감내했던 이유 즉, '향조국진군'(向  
祖國進軍)의 정신과 다름 아닌 것이었다. 바로 그 투철한 독립정신의 상징이 '청산리 대첩'이었고 그 때의  
정신은 민족정신의 정수로 남아 오늘의 대한민국 정신 속에 큰 물줄기로 흐르고 있다. 청산리 대첩은 그렇  
듯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도 가장 장렬한 승리로 승화시킬 수 있는 민족의 저력을 보여 준 쾌거요 서광이었  
다. ㉞

| 독립운동 |

# 순국선열 나석주 의사의 항일 독립투쟁

김상욱 · 나석주 의사 기념사업회



▲ 나석주 의사

나석주 의사(羅錫疇 1892-1926)는 3.1 운동 참여, 군자금 조달, 임시정부, 무장 의열투쟁 등 항일독립운동에 큰 발자취를 남긴 인물입니다. 특히, 일제(日帝)의 식민통치가 경제수탈에 집중될 때, 1926년 12월 28일 착취기관이던 조선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세례를 가하고, 일본인 경부 등 7명을 살상하는 시가전을 벌이다가 자결 순국하신 의거는 일제침략의 만행에 항거하며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다시 한번 떨친 쾌거였습니다.



## I. 출생 및 성장

나석주 의사는 1892년 황해도 재령군 북율면 진초리 참봉댁으로 알려지던 아버지 나병헌과 어머니 김해김씨 사이에서 외아들로 출생하였다. 4세 때인 1895년 마을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기 시작하여 뒷날 한학에 조예가 대단히 깊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대 독자인 나의사는 1902년 11세의 나이로 네 살 위인 15세의 이문성(李文成)과 결혼하였다.

1906년 15세에 나씨 문중을 비롯한 마을 유지들이 설립한 보명학교(普明學校)에 입학하여, 1910년 19세에 보명학교를 졸업한 후, 안악(安岳)으로 가서 김구(金九)선생이 설립한 양산학교(養山學校)에 입학하며 당시 35세였던 김구선생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의사는 김구정신(金九精神)을 신앙으로하는 제자가 되었다.

1911년 20세에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고향땅 재령평야의 3천여 정보(町步)를 갈취하는 것을 보고 민족적 울분을 참지 못한 나의사는 1913년 동양척식의 소작인으로 전락한 노부모를 고향에 남긴 채 처자를 거느리고 북간도의 모아산(帽兒山)지방으로 제1차 망명길에 올랐다.

망명 후 이동휘(李東輝)선생이 설립한 한인무관학교에 입학, 8개월 만에 졸업하고, 중국 낙양에 있는 군벌 오패부(吳佩孚)의 무관학교를 다시 졸업, 중국군 장교로 중대장이 되는 등 무인의 길을 택하였다.

1915년 모친의 병세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가족을 거느리고 고향(재령)으로 돌아와서 정미소를 경영하며 마을 아이들에게 한문과 신학문을 가르쳤다. 이 무렵 김구 선생이 나의사의 집을 드나들었다. 1918년 동척회사와 일본이민이 재령평야를 잠식해 버리자 고향에서 살 수 없어 겸이포(兼二浦/松林)로 이사하였다. 이곳에서 미곡상을 차려 생활의 안정을 얻었으며, 이 미곡상회가 황해도, 평안도 일원 독립운동가들의 비밀결사의 모체가 되었다.

## II. 독립운동을 시작하다

### 1. 3.1독립만세 운동에 참여

1919년 3.1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자 나의사는 김덕영 등 동지들과 수만장의 태극기

## | 독립운동 |

를 만들어 농민들에게 비밀리에 나누어 주고, 3월10일 재령군 북울면 내중리 장날, 수많은 시위 군중을 주동하다가 왜경에게 구속되었다. 이로 인해 미곡상도 문을 닫게 되어 겸이포를 떠나 사리원(沙里院)으로 다시 이사하게 되었다. 왜경에게 구속되었다가 풀려 나온 후부터 나의사는 해외에 나가 있다가 귀국한 북울면 출신 김덕영(金德永)과 상의하여 중국에 망명하고 있는 애국지사들과 연락을 취하면서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 2. 적극적인 독립운동 전개

### 1) 신출귀몰한 군자금 모금작전 - 6인조 권총강도단 사건

사리원의 나의사 집에 김덕영을 비롯하여 최호준(崔皓俊), 최세욱(崔世郁), 박정손(朴正孫), 이시태(李時泰) 등이 모여 자금을 조달하여 무기를 구입하고 군자금 조달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가기로 결의하였다. 무기를 구입한 6인조는 1920년 1월 4일 권총을 들고 사리원(沙里院)부호 최병항(崔秉恒)의 집을 침입하였다. 이들은 모두 복면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강도답지 않게 모두 최부자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

최부자도 그제서야 좌정을 하고 냉정을 찾았다. 그때 한 복면이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다. “저희들은 일반강도가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꾀하기 위해 군자금(軍資金)을 마련하러 온 젊은이들입니다.”말뜻을 알아차린 최부자는 잠시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눈치였다.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오히려 6인조 강도들이 불안한 눈치를 보였다.

“너, 석주로구나! 그 복면을 쓰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 춘부장 어른께서도 편안하신가?” 깜짝놀란 나석주는 복면을 벗고 최부자 앞에 조아렸다. 김덕영(金德永), 최호준(崔皓俊), 최세욱(崔世郁), 박정손(朴正孫), 이시태(李時泰) 등 나머지 다섯 명도 얼굴을 드러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이것밖에 없으니 유용하게 쓰도록 하계나!”

최부자가 그들에게 내놓은 돈은 6백30원(圓)이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액이었다. 그들은 크게 감동하며 엎드려 큰 절을 드린 다음, “저희들이 떠나고 나면 즉시 왜경(倭

警)에게 연락하여 권총강도를 당했다고 신고하십시오. 왜경이 눈치채면 봉변을 당하십시오.”

얼마 후 사리원경찰서는 6인조 권총강도단의 행방을 찾았으나 오리무중이었다. 체포를 면하기 위해 흩어졌던 동지 중 최호준(崔皓俊), 최세욱(崔世郁), 박정손(朴正孫) 등이 체포되고, 황주에서 탈출에 성공한 나석주는 김덕영(金德永) 동지와 합류하여 상주로 변장하고 다음 거사를 위해 숨어다녔다. 석 달이 지난 4월 안악읍 어느 장날, 나석주와 김덕영은 백주에 읍내에 나타나 안악(安岳) 부호들인 김응석(金應石), 원형락(元炯洛)으로부터 상당한 군자금을 모금하고 몇몇 집을 방문하여 적지않은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두 사람은 피신해 다니는 중, 평남 대동군의 악명높던 왜경 1명과 군민들의 원성을 받아오던 은율군수(殷栗郡守)를 현지에서 처단한 후 구월산 등지로 신출귀몰하며 군자금을 계속모았다. 친지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피신하며 활동하던 나석주는 김덕영과 함께 수사망을 교묘히 벗어나 황해도에서 목선을 타고 진남포를 거쳐 1920년 음력 9월 22일 중국으로 망명길에 올랐다.

## 2) 상해에서의 망명생활

### (1) 상해에서 군자금 모집 활동

나의사는 상해(上海)에서 은사인 백범(白凡)을 다시 만났다. 당시 백범은 임시정부 경무국장이었다. 이때부터 그는 스승의 지도를 받으며 독립운동을 계속하게 된다. 임정(臨政) 경호원·의정원(議政院) 근무와 함께 한인애국단에 입단하여 북경(北京)과 천진(天津) 방면의 동지들과 제휴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그는 다시 의열단(義烈團)에 입단하여 장덕운(張德雲)동지와 더불어 상해의 공인도박장을 습격하여 거금의 군자금을 마련하였고, 북경에서는 어느 친일부호를 털어 고갈된 의열단의 군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 (2) 병인의용대 창설, 입단

1926년은 나석주 의사에게 있어서 실로 엄청난 변민의 한 해이기도 했다. 조국광복이란 대의를 품고 해외로 망명한지 6년째가 되던 해이기도 하다. 그는 '별로 조국을 위해

## | 독립운동 |

크게 헌신한 것도 없고, 노부모와 처자식에 대해 죄인' 이라고 하면서 1926년 병인년엔 새로운 각오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크게 헌신하고자 했다. 나석주는 병인의용대의 창설을 주도하며 자신도 입대하고, 이 의용대를 중심으로 왜적 요인 척결, 중요시설 파괴, 국내 친일분자 숙청 등 행동하는 애국단체로 키워갔다.

## (3) 김창숙 선생과의 만남

그 무렵, 나석주 의사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일이 닥쳐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저명한 독립운동가인 김창숙(金昌淑) 선생과의 만남이었다. 김창숙 선생은 군자금 모금 및 잠들고 있는 민족혼을 일깨우기 위해 국내에 잠입하여 경기, 충청, 전라, 경상도 지방의 유림과 유지들을 찾아다니며 3천 여원의 군자금과 함께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5월 말경 다시 상해로 돌아왔다. 김창숙은 석오(李東寧)와 백범에게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병이나 민란, 특히 황해도 재령지방에서 목격한 동척회사의 횡포와 북울지역 소작농민의 피눈물나는 소작쟁의 등 국내의 정세를 설명하고, “인심이 이미 죽었으니 만약 비상수단을 써서 진작(振作) 시키지 않으면 우리들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또한 장차 돌아갈 곳이 없이 궁박하게 됨을 면치 못할 것이요. 지금 내가 약간 가지고 온 자금으로 대규모 사업을 착수하기는 실로 어렵습니다. 청년 결사대들에게 자금을 주어 무기를 가지고 국내로 들어가서 왜정기관(倭政機關)을 파괴하고 친일부호(親日富豪)를 박멸하여 한번 국민의 의기를 고취시켜 봅시다. 그런 연후에 다시 국내와 연락을 취하면 되겠지요.”라고 제안하자 두 분 모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를 실행할 인물에 대해 논의하던 중 김구(金九)가 먼저 제의를 했다.

“나와 친한 결사대원으로 나석주, 이승춘(李承春/일명 化翼)과 같은 용감한 청년이 지금 천진(天津)에 있소. 또 그곳에는 의열단원도 많으니 무기를 구입, 천진으로 가서 기회를 보아 실행하는 것이 좋겠소.”

김창숙 선생은 천진으로 가서 나석주, 이승춘 등을 만나 백범의 소개 편지와 계획안을 내 보였다. ‘그대들이 지금 잠자고 있는 대한의 민족혼을 일깨워 줘야겠오’ 라는 김구 선생의 소개장을 받아 본 그들은 모두 비분강개하여 팔뚝에 힘을 주면서 “우리들은 한 번 죽기로 이미 결심하였으니 어찌 즐거가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김창숙 선생은 유자명을 시켜 구입해 가지고 온 무기(폭탄 3개, 권총7정, 실탄 490발)와 행동자금을 나석주 등에게 주면서 “제군의 의(義)에 용감함은 후일 독립사(獨立史)에



빛나게 될 것이니 힘써주오.”라고 당부하고 상해로 떠났다.

위해위(威海衛)로 떠났던 나석주, 이승춘, 한봉근, 유자명 등 일행 네 사람은 배편을 구하지 못해 6개월여를 허송하게 되고, 김창숙 선생에게서 받은 거사 자금 1천1백 원 중 상당액을 허비하게 되었다. 나석주 등이 아직도 위해위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들은 김창숙 선생은 7월 어느 날 천진을 경유해 위해위로 가서 그들을 만났다. 배편을 구하기 어려워 지연되고 있는 사정을 보며 김창숙 선생은 그들과 수습 일을 같이 기거하며 기회를 엿보아 실행하도록 격려했다. 급기야 1926년 12월 24일, 배편을 마련했으나 일행 4명이 함께 국내로 들어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금이라, 유자명, 이승춘, 한봉근 동지는 위해위에서 천진으로 돌려보내고 나석주 의사는 홀로 이통환호(利通丸號)에 승선하여 인천으로 향했다.

단신으로 떠나는 나석주 의사에게 김창숙 선생은 “백범도 그대의 장도(壯途)를 학수고대하고 있소. 민족의 고혈을 빨고 있는 식산은행(殖産銀行)과 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가 그대의 손에 폭파되는 날 일제의 간담이 서늘할 것이며, 잠자고 있는 조선의 민족혼이 불길처럼 다시 타오를 것이오. 대의를 위한 무운(武運)을 비는 바이오…”라고 격려했다.

#### (4) 단신으로 귀국선에 오르다 - 민족혼을 일깨우러 서울로…

나석주는 선원으로 위장하고, 마침내 12월 26일 오후 2시 20분경 인천항에 내렸다. 가방에는 폭탄 두 개와 10연발 권총, 그리고 40여발의 실탄이 숨겨져 있었다. 중국인 청관에 들러 잠시 여독을 풀 나석주는 당일 밤 서울로 올라와서 열차를 이용, 먼저 진남포로 향했다. 고향을 떠날 때 한마디 이별의 말을 하지 못한 부모님과 부인, 아들·딸을 만나보고 국내 소식도 얻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귀향길 진남포역에서 사리원행 열차를 기다리던 중 일제의 삼엄한 경계가 고향등지에 펼쳐져 있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다. 나석주는 부모처자를 만나려던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발길을 서울로 돌려서 12월 27일 오후 경성역에 내렸다.

중국인 선원으로 위장한 그는 싸늘한 바람을 맞으며 남대문을 거쳐 황금정(黃金

## | 독립운동 |



▲ 동양척식주식회사

町), 지금의 을지로 입구로 걸음을 옮겨갔다. 구리개의 초입을 가로막으며 우뚝 솟은 회색빛 목조건물 앞에서 나석주는 발길을 멈추었다. 동양척식회사 경성지점, 굳게 닫힌 동척의 철문을 뚫어질 듯 쏘아보던 나석주는 그곳으로부터 2백여 미터 떨어진 조선식산은행 건물로 발길을 옮겼다. 은행의 닫힌 문 앞에서 서성이는 그를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다.

## (5)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 투척, 연이은 시가전

나석주는 그날 밤을 보내기 위해 남대문동 오정목 13번지의 중국인 전용여관 동춘잔(東春棧) 16호실에 여장을 풀었다. 가족들에게 우국충정을 담은 마지막 글을 쓰고 늦잠에 들었던 그는 다음 날인 1926년 12월 28일 오전 11시 반경 신문에 쓴 폭탄을 옆구리에 끼고 여관을 나와서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오후 2시 5분경 황금정/을지로 입구의 동양척식회사 앞에 한 중국인 노무자가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한바탕 동척의 정문을 휘몰아치고 지나갔다. 주위를 둘러보며 건물의 구석구석을 날카로운 눈초리로 살피던 나석주는 정문을 향해 곧장 걸어들었다. 건물 수위가 그를 불러 세웠다. 일본인 마쓰모도 수위가 까다롭게 물어보며 진입을 막는다. 그가 조선인 직원을 찾는다고 속임수

를 써보았지만, 통과하지 못하고 일단 발길을 돌렸다. 그는 전차길 남쪽으로 돌아 남대 문통 큰길로 나왔다.

세찬 바람을 안고 부지런히 걷던 나석주는 어느덧 신한은행 건물 안으로 성큼 발을 들여놓았다. 은행 안에서는 연말 경기로 일본인 고객들이 창구 쪽에 북비고 있었다. 그는 행원이 자리를 비운 대부계 창구로 다가가서 폭탄의 안전장치를 뽑아 들었다. 아무도 나석주가 있는 곳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주저없이 폭탄을 쓴 신문지 뭉치를 안쪽으로 집어 던지고 재빨리 현관을 빠져 나왔다. 폭탄의 살상반경을 충분히 벗어나기 위해 정신없이 전차길을 건너서 은행 건물을 바라보았으나 폭탄이 터졌어야 할 신한은행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불발이었다. 약 5분 후 불발탄을 발견한 은행측에서 본정경찰서(지금의 중부경찰서)에 이 사실을 신고하자, 즉시 황금정 네거리 일대에 비상경계가 퍼지고 경찰의 호각소리가 정적을 흔들기 시작했다. 사방으로 펼쳐지는 경찰의 수색망을 바라보며 그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음, 할 수 없군, 길은 하나밖에 없다! 가자 2천만의 원부, 착취의 아성, 민족의 원한이 사무친 동척! 내 너를 이 폭탄으로 상대해 주마!’

나석주는 아직 뿔려 있는 동양척식주식회사로 통하는 골목길을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백주의 거리를 진격하듯 폭탄을 낀채 동척의 정문을 향해 거침없이 걸었다. 그는 이 전과 마찬가지로 무턱대고 정문을 지나쳤다. 현관에 가까이 다가갈 때, 일본인 기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던 마쓰모도 수위가 쫓아와 욕설을 하며 가로막으려 하자, 나석주는 권총을 뽑아들었다.

마쓰모도가 쓰러지고 도망치려던 일본인 기자도 쓰러졌다. 짹짜게 몸을 날린 나석주는 현관을 통과하여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를 막아서려는 직원에게 사격을 가하고, 역시 제지하려는 토지개발부 간부들을 거꾸러뜨리며 총을 난사했다. 그곳을 나온 나석주는 탄창을 갈아끼우고, 기술과의 문을 열어젖히자마자 총을 난사하고는 하나 남은 폭탄을 힘껏 던졌다. 2층 한 귀퉁이의 창문 옆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으나, 끝내 폭음소리는 들려지지 않았다. 호각과 사이렌을 울리며 경찰들이 몰려오는 것을 본 나석주는 마침내 최후의 순간을 각오하며 서서히 아래층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현관 입구 안쪽에 몸을 숨겼던 그는 경찰들이 서쪽으로 뿔린 정문을 지키는 모습을 보자, 동쪽의 뒷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다. 수위실 안에서 소리지르는 자를 향하여 총격을 가한 나석주는 경찰이 멈춰서려는 틈을 타서 후문을 박차고 나가서 단숨에 전차길을 가로질러 건넜다. 일본인 경찰 하나가 총을 쏘며 생포하겠다고 전차길을 건너온다. 다바다 경부보였다. 나석주가 날째

## | 독립운동 |

게 몸을 돌려 방아쇠를 당기자, 다바다는 전차길 한 가운데에 큰대자로 나가 떨어졌다.

나석주는 다시 뛰었다. 그러나 그는 얼마 나아가지 못해서 멈추었다. 경찰의 포위망이 차츰 차츰 조여왔기 때문이었다. 황금정 2정목(黃金町 2町目), 삼성당 건재약국 앞의 전 신주에 몸을 기대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던 나석주는 최후의 순간을 다짐했다. 그는 속주머니에 있는 탄알집을 갈아 끼울 시간이 없음을 알았다. 힘있게 권총을 쏘며 하늘을 보았다.

‘이승춘, 유자명, 한봉근, 그리고 손기업 동지! 나는 끝내 민족의 원한이 서린 동척을 폭파하지 못하고 가오. 나는 이제 가도 이 부끄러움을 영원히 씻을 수 없을 거요, 용서하오. 착취의 아성을 눈앞에 두고도 어찌할 도리가 없소. 원통하오. 그러나 나의 뒤에는 여러 동지들이 있고 2천만 동포가 있으니 안심하고 가겠소.’

그는 모여든 군중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우리 2천만 민중아, 나는 2천만 민중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희생한다. 나는 조국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였다. 2천만 민중아, 분투하여 쉬지 말아라!’

‘탕!’ 한 방의 총성이 울렸다. 그의 눈은 불거졌고 더욱 빛을 발했다. 손에 쥐어진 권총은 그대로 그의 가슴을 향해 있었다. 잠시 후 두 번째 총성이 울리고 연이어 세 번째 총성이 울렸다. 그는 자기 가슴에 세 번 쏘고서야 풀쩍 넘어졌다. 이때가 오후 2시 45분!

스스로 세 발의 총을 가슴에 쏜 나 의사는 유혈이 낭자한 채 아직 눈을 감지 못하고 있었다. 급히 총독부 병원으로 옮겨지고 응급처치를 받아 잠시 의식이 회복된 나 의사를 종로경찰서 미와 경부가 잡아 흔들며 심문하려 했다. 「왜놈!» 한 마디하고 의식을 다시 잃어 가는 나 의사의 옆구리를 미와가 쥐어박으며 병원의사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나 의사에게 매달렸다. “빨리 대답해! 조선 놈이지. 그리고 이름은?” 나석주는 타는 듯한 시선으로 미와를 쏘아볼 뿐 입을 열지 않았다. 어떻게 해서라도 무엇인가를 알아내려는 미와는 잠시 후 의식을 다시 회복한 나 의사에게 간청하듯 묻는다. “당신은 조선 사람이지요? 식산은행과 동척에 폭탄을 던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와 같이 계획한 일이죠?”

“이름은 나-석-주 황해도 재령군 북울면 진초리…” 나 의사는 그것만을 또렷이 말했다.

“누구와 같이 계획했지요?” 미와가 기회를 놓칠세라 다급히 물었다. 그러나 나 의사는 그 이후로 입을 열지 않았다. “공범자의 이름을 대라!” 경무국 고등과장 야마구찌가 참다 못해서 소리쳤다. 고통으로 잔뜩 일그러진 나 의사는 감았던 눈을 떠서 그들의 얼굴을 쏘아 보았다. 다시 눈을 감고 입속의 혀를 혼신의 힘을 다해 깨무니 그의 입에서도 피가



흘렀다.

잠시 후 3시 35분, 나의사는 낯선 얼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의로운 인생을 마감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지난 1962년 3월 1일 건국공로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

| 독립운동 |

### 나석주 의사의 친서



#### 조선일보사 귀중

계자 본인은 우리 2천만 민족의 생존권을 찾아 자유와 행복을 천추만대에 누리기 위하여 의열 남아가 희생적으로 〇〇한 의열단의 일원으로서 왜적의 관·사설기관을 물론하고 파괴하려고 금차 회국도경한 바 최후 힘을 진력하여 휴대물품을 동척회사, 식산은행에 선사하고 힘이 남으면 관내 본정 1,2,3,4정에 까지 출두하여 시가화전을 하고는 자살하겠기로 맹세코 실행 전 〇〇에 〇〇 보축(報逐)하오니 〇〇 〇〇후 본인의 의지를 가급적 귀보에다 소개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살하려는 이유는 저 왜적의 법률은 우리에게 정의의

주려고 만들어놓은 것이 아닌데 불행히 왜경에게 생포되면 본인의 전투력은 다 빼앗긴 후에 소위 심문이니 무엇이니 하면서 세계에 없는 야만적 악행을 즐 것이 명백하기로 불복하는 뜻으로 현장에서 자살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더 쓰지 않고 그만둡니다

12월 18일 희생자 나석주 올림

※ 1947년 12월 28일자 조선일보 2면에 게재된 나석주의 친필서한.

거사 전에 조선일보사 신석우(신석우)사장 앞으로 보내어 조선일보에 게재하여 주기를 요청하였던 것으로 거사 당시에는 보도되지 못하고, 당시 사진부장 문치장씨가 사진복사하여 소장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당시 일제(日帝)의 대표적 수탈기관이었던 동양척식회사와 식산은행을 파괴하고 힘이 남으면 주변에서 시가전을 벌이기 위해 무기(폭탄과 권총)를 휴대하고 상해에서 귀국, 서울로 왔으며, 거사 후에는 자결할 것임을 표명하고 있다.

| 특별기고 1 |

# 용서는 할 수 있어도 과거를 잊지 말자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에게 끼친 범죄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여러 차례의 우리국민에 대한 대량 학살까지 있었으니 그보다 더한 범죄야 어디 더 있겠는가? 죽음보다 더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수많은 우리의 젊은 여성들이 정신대라는 명목 하에 일제에 끌려가 성노예 노릇을 했다. 이들이 받은 상처와 살아서 겪어야 했던 인간적 치욕과 파멸은 죽음 이상의 것이다. 그래도 사람의 목숨은 질겨 이들 중 이제 몇안되지만 80이상의 노인이 되어 아직도 살아서 자신들이 받은 치욕의 상처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화 됐다는 일본은 지금도 뉘우침이 없이 공식적인 배상은 거절하고 위문금을 모금하는 등 새로운 인간적 모욕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항의로써 생존 피해자와 관심있는 분들이 매주 서울 주재 일본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해오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지진에 이은 쓰나미로 일본 혼슈 동북부의 미야기현 일대가 큰 피해를 입은 것을 보고 항의 집회 대신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행사를 치루었다. 참으로 거룩한 인도주의의 노출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 중 적국에 재난이 닥쳤을 때 이를 반기는 것은 오히려 상식이 아닌가 한다. 제2차 대전 중 일본과 독일의 도시들이 연합군의 폭격으로 쑥밭이 되어갈 때, 연합국의 시민들은 매일 신문 보도를 보며 통쾌하게 느꼈던 것은 내 자신도 당시 경험했던 것이 기억난다. 대한민국은 1965년 일본과 기본 조약을 맺어 국교를 정상화했다. 그러나 이 조약이 두 나라의 과거를 깨끗이 청산했다고 볼 수 없다. 독일 연방공화국(서독)정부는 제2차 대전 후 승전국들뿐

## | 특별기고 1 |

만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했으며, 전쟁이 끝난 지 60년이 넘는 현재에도 전쟁 범죄자들을 색출 처단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이웃 나라들과의 '적대관계' 뿐만 아니라 '적대정서' 까지 해결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도 배상이 아닌 경제협력과 한국에 대한 독립축하 등의 명목으로 당시의 군사정권을 매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제법의 절차에 어긋나는 강요로서 이루어진 이른바 을사보호조약과 경술병탄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끝을 내려고 한 것이다.

독일은 수상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현장에 가서 무릎을 꿇고 누가 보아도 그 진심을 느낄 수 있는 태도로 눈물을 흘리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일본 자체만 해도 마땅히 전범으로 처단 받아야 할 천황이 존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범자들이 수상 직에 오르고 요즘까지도 전범자의 후손들이 판을 치고 있는 형편이다. 제2차 대전 후 소련이 폴란드 동부의 상당 부분을 소련령으로 편입시켰다. 반면 오데르와 나이세 두 강의 동쪽의 10만km<sup>2</sup> 정도의 방대한 지역을 소련의 위성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민주공화국(동독)과의 조약으로 폴란드에게 넘겨주었다. 그 넓이는 현재 통일된 독일 면적의 1/3에 달하는 것이었다. 서독 정부는 당연히 여러 해 동안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 빌리 브란트 서독 수상은 폴란드가 점령한 이 지역을 두 나라의 국경으로 삼는데 동의했으며, 독일과 폴란드는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어 두 나라 사이의 몇백년에 걸친 적대관계를 청산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떠한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과거 60년 이상 한국이 영유하고 있는 0.186km<sup>2</sup>에 지나지 않는 바위섬을 지금도 자기들의 영토라고 우기고 있다. 우리 영토를 넘보는 나라는 분명히 우리의 적이다.

이번 쓰나미가 일본을 휩쓴 참사의 화면을 보면서 제2차 대전 때, 일본을 폭격할 때 느꼈던 쾌감과는 달리 동정심과 안타까운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일본 정부의 한국과 우리 민족에 대한 무시에도 불구하고 대일감정이 그만큼 누그러진 것만은 사실이다. 이번 참사가 일어나자 우리 정부는 즉시 재난 구제인원과 더불어 식수, 긴급구호 식량 및 봉산 등 약품을 지원한 것도 잘한 일로 생각된다.

방송의 화면과 신문의 지면은 전부 일본의 진재, 쓰나미와 원자로 사고로 채워졌다. 4월에 있을 선거를 앞두고 또한 많은 국내 중요 문제들과 중동 민주화 혁명의 뉴스 등 모두 쓰나미에 쓸려간 느낌이 든다.

우리 신문들은 과거 있었던 일본 대지진에 관하여 언급했으며 거기에 1923년 9월에 일어난 간도(관동)대지진에 관하여도 그런 강진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연일 지진과 쓰나미 보도를 하면서도 우리 동포 1만명 내외(정확한 희생자 통계 없음)가 학살당한 사실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미국의 뉴욕타임스지 인터넷 판에서 쓰나미 발생 당일 언론인이며 작가인 ‘조수아 햄머’의 기사에서 간도대지진에 관한 회고와 더불어 당시 미국인 희생자가 150명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그리고 우리 언론들은 대중의 관심이 많은 재난의 상세한 보도에만 열중했으며, 보다 냉정하게, 특히 과거에 이런 사건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와 앞으로 전개될지도 모르는 정치·사회적 전망에도 지면을 할애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간도대지진에 관하여 잘 모르는 독자를 위하여 간략한 설명을 하겠다. 1923년 9월 1일 일본 간도 지방에서 일어난 대진으로 진앙지 부근인 요코하마시는 전파되었다. 그리고 일본식 목조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토교에 대화재가 발생하여 토교시의 60%가 타버렸다. 이 지진으로 약 15만명의 목숨이 사라졌다. 이 때 대통령이 명목상의 회장인 미국 적십자사가 칼빈 쿨리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구호를 호소한 결과 당시의 금액으로 1천 2백만 달러의 모금을 하여 일본에 전달했다. 미국은 즉시 중국에 주둔하는 군함을 파견했으며 쌀, 천막, 담요와 통조림 등 대량의 구호물자를 실어 날랐다. 아직 현재와 같은 경제대국이 못되는 일본인들은 마땅히 이런 지원에 감격했었을 것으로 느껴진다. 지진의 결과로 일본은 토교를 새로운 현대 도시로 재건했으며, 근면한 일본인들의 노력은 지진의 피해를 넘어 보다 발전하는 계기도 되었다. 그러나 극우파들은 이것을 편협한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 이들은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느니 혹은 사회주의자들과 공모하여 폭동을 일으키려했다는니 하는 터무니없는 유언을 퍼뜨리며 우익 깡패들이 선두에 서서 조선인 노동자들과 일본인 사회주의 인테리와 노동운동자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였다.

이번 쓰나미가 일어나자 방송국마다 앞 다투어 일본을 위한 모금을 할 뿐만 아니라 거리의 모금까지 등장했으며 재벌들도 거금을 내놓고 있다. 더구나 전례없이 때 아닌 ‘자선냄비’까지 나타났다. 수십 만명의 인명을 앗아간 동남아의 쓰나미 참변 때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혹자는 우리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한·일 사이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현재의 한·일 관계의 책임은 앞서 지적했듯이 일본 때문인 것이며 우리가 돈 좀 준다고 해결된다는 것은 의심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을 위하여 그야말로 퍼주고 있는데 일본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것을 교과서에까지 올리는 것을 공식화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이며, 이번 쓰나미 정도의 피해 복구에는 외국의 지원이 필요 없는 나라이다.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는 부자나라도 필요하지만 모금 활동은 필요 없는 일이며, 과연 일본이 얼마나 고마워할지도 의문이다. 그런 동정심은 일본과 같은 극적인 재난이 아니더라도 여러 해 동안 식량난으로 고생하는 북녘 동포들, 특히 그곳의 영양실

## | 특별기고 1 |

조에 걸린 어린이들을 위하여 나누어 준다면 받는 사람들에게도 낯하고 우리의 평화와 궁극적인 통일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간도대지진의 역사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한다. 이때 일어난 극우 민족주의적 히스테리는 외국의 원조를 고맙게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군국주의 우파의 집권으로 짧았던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의 종말을 촉진했으며, 끝없는 확장과 침략으로 결국 일본이 추축국의 일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일으키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너무 빨리 잊은 것 같다.

한편 일본의 재건 노력은 근년에 침체에 빠진 일본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주어 다시 고속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보인 일본에 대한 이웃의 정을 진정 고맙게 여기고 한일간의 과거사를 제대로 해결하는 성숙된 자세를 보이게 되기도 바라는 바이다. 그리고 일본이 독일과 같이 뉘우치고 알맞은 배상을 함으로써 우리와 참된 가까운 이웃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를 용서할 수는 있어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

| 특별기고 2 |

# 국군의 정체성 바로 세우자



표명길  
평화재향군인회상임 대표

우리 정치사회에서는 ‘정체성’이라는 낱말을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왜곡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로 광복 후 피 흘려 되찾은 국권을 친일세력들이 고스란히 장악하여 우리사회 모든 분야를 침식석권 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걸머진 기득권을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권안보적인 공작차원에서 이 용어를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정체성(identity)’이라는 단어의 본뜻은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 입장 등이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의 독립적인 본모습을 정체라 하며 이를 깨닫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이는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문화, 종교, 민족 등에도 적용되는 개념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세상이 바뀌더라도 변할 수 없는 대한민국 본디의 모습이다. 이는 결코 민주주의냐? 전체주의냐? 혹은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와 같이 시대상황의 변천 따라 선택적으로 변화 가능한 비교 정치이념적적인 성격이 아니다. 민족사적 정통성 유무에 관한 문제다.

일본의 압제를 벗어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독립군과 광복군 용사들이 동토의 시베리아와 만주벌에서 풍찬노숙하며 일본군과 맞서 혈전을 벌이고 있을 때 왜군 편에 서서 독립군을 향해 총질하며 독립 운동가들을 색출 고문하던 만주군 및 일본군 출신들이 해방과 더불어 대한민국국군의 요직을 완전 장악해버림으로서 국군의 민족사적 정통성은 단절 실종돼버렸다.

## | 특별기고 2 |

민족반역의 매국적 정체성을 가진 이들 친일세력이 초대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시작하여 21대 참모총장에 이르기까지 장장 31년간 한세대를 내리 군을 독차지해버렸으니 우리 군이 어찌되었겠는가? 민족혼은 죽고 민족정기가 끊겨버려, 민족의식은 없고 무력만 있는 껍데기 군대가 되었다.

군의 대들보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에서부터 계획적으로 민족사적 소명의식이나 민족적 자부심의 민족정 의감이 싹틀 수 없도록 훈육했다. 필자가 4학년생도 시절 ‘민족일보’를 구독했다가 퇴교 당할 뻔 할 정도로 민족대의를 위한 자기희생의 정신배양을 절치부심 차단했다.

고위간부들은 오로지 일신상의 영달만을 꾀하는 출세 지향적인 이기적 인간이 되도록 교육 인사관리 되었다. 상부의 눈치 보며 진급에만 급급한 정치군인들로 길들여져 상관의 진급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군대로 성장했다.

부하인권무시, 무조건적 절대복종의 일본군의 극단적인 권위주의문화가 그대로 유입 국주의 일본군대의 판박이처럼 됐다. ‘국민을 위한 군대’는 말뿐이고 국민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으로 착각하는 이상한 군대가 되었다. 이랬으니 대부분 국민들은 예비역 고급간부들에 대해 다분히 냉소적이고 경원시하는 분위기다.

필자는 1987년 예편 후, 정훈감 출신들로 구성된 ‘군정신교육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 군정신교육에 대해 논의하곤 했었다. 한번은 “군은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하여 그 정체성을 확고히 정립 교육함으로써 장병들이 군에 대해 높은 자부심을 갖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만날 대북 적개심 고취, 미국의 은혜 절대 잊지 않기 이런 교육만 천편일률 되풀이해서 되겠는가? 특히 반민족친일세력의 기관지처럼 되어있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따위의 논조를 그대로 정훈교육에 적용하여 국군 속에 민족혼이 자랄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 했다가 참석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선배 정훈감 이 장군은 “나는 지금까지 평생 동아일보를 구독하고 있소. 표장군의 말은 곧 나를 모독하는 말이요. 어떻게 정훈감 출신이 그런 말을 하오. 취소하시오.”라고 소리를 버럭 질렀다. 다른 후배 정훈감은 “조선일보를 비판하는 사람은 사상이 의심스럽다.”며 입을 삐죽였다.

민족정의의 역사의식 없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도 계속 군의 최고위직을 점해 왔으니 우리 군은 정신적으로 얼마나 병들고 피폐해졌겠는가? 잃어버린 국군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회복함이 참으로 시급하다.



## 국군의 정통성 실증

주지하다시피 우리민족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유구한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수많은 외침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를 단호히 물리쳐 역사적, 문화적 정통성을 지키고 이어왔다. 하지만 근세에 이르러 일제의 침탈로 1907년에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 해산 당했다. 군인들이 전국으로 흩어져 의병들과 합류함으로써 대일 의병전쟁의 열기가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 나갔다.

그러나 1910년 경술국치로 국권을 완전 강탈당하게 되자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의병주도 세력들이 남만주와 연해주 등 해외로 망명 항일독립운동의 기지를 건설 대일 지구전을 대비하고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이회영선생 일가는 중국으로 망명 1911년 6월 '신홍강 습소' 설치를 시초로 신홍무관학교를 설립 2,000여명의 독립군 간부를 양성 배출했다. 이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조선혁명군, 한국독립군, 고려혁명군, 한국광복군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1920년 6월 흥범도 장군이 이끄는 봉오동 전투에서는 일본군 1개 대대를 섬멸했다. 동년 9월 김좌진 장군의 독립군 2,500명은 5만 명에 이르는 일본군과 싸워 적 3,300명을 사살하는 청산리대첩을 이뤄내는 등 독립군은 수많은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멸 대승을 거두었다.

한편 3.1운동을 계기로 1919년 4월 13일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며 임시정부 주석인 김구선생의 주도 하에 1940년 9월 17일 충칭에서 광복군사령부 창설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하여 명실상부 정부군으로서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선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2차세계대전중인 1941년 12월 9일 일본과 독일에 대해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했고 연합군과 함께 중국과 미얀마전선 등에서 대일전쟁을 수행했다. 1945년에는 미군의 OSS부대와 합동으로 국내에 진입, 일본군을 무장해제 시키는 계획을 착실히 준비하고 있었으나 일제의 무조건 항복으로 무산됐다.

이렇게 항일의병전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청사에 길이 빛나는 독립군과 광복군의 대일독립전쟁의 맥을 이어왔음이 바로 대한민국국군의 정통성이다.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일본군과 맞싸워온 정신을 계승한 군대라는 자부심이야말로 대한민국 국군의 정체성이다.

특히 국군의 효시인 광복군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국민이 주인 되는 공화제 정부인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식 군대로 창설되었다. 왕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왕조의 군대가 아닌 국민을 위한 민주군대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그 민족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 | 특별기고 2 |

**국군의 정체성 왜곡**

그러나 광복 후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미·소 강대국의 국익목적에 이용당해 냉전의 각축장이 되어 조국은 분단되고 민족은 이데올로기의 희생물이 되었다. 급기야 북한의 남침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적 전쟁까지 치렀다. 6.25전쟁은 친일역도들의 매국적 정체성을 감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들추어 민족사적 엄중한 심판을 가할 우려 있는 민족양심세력들을 빨갱이로 몰아 무참히 학살 입막음하는 공포의 세상을 만들었다.

그들이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민족의 미래야 어찌되던 미군정의 보호아래 '단독정부수립, 멸공통일'을 외치며 오로지 정권탐욕에만 눈이 멀어있던 이승만에 빌붙어 그의 정적들을 암살 제거 잠재위증으로서 국정을 농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들이야말로 일제의 앞잡이 노릇하며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파괴 부정해온 반민족 세력이면서 가증스럽게도 불법학살 등의 명분은 언제나 '대한민국의 정체성 수호'였다. 그들은 모든 속임수와 살육의 공포까지 동원, 일제가 써먹던 식민지화의 문화 및 교육정책 그대로를 답습하여 세뇌공작의 거짓교육과 언론의 상징조작에 의해 국민들을 국가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반공이데올로기를 대한민국의 정체성인양 맹신맹종토록 만들었다.

민족화해와 평화통일을 주장하면 '친북좌파'나 '대한민국의 정체성 부정'이니 하며 '빨갱이'로 낙인찍어 저주와 죽음의 광야로 내몰았다. 많은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은 빈곤층으로 전락 가난에 쪼들리는 멸시천대의 슬픈 삶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국가의 정통성이 확립되지 못하고 국군의 정체성이 바로세워지지 않은 상태이니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해 생애계획에 부담이 되는 2년여를 병영에서 보내야만 하는가에 대해 자신 있게 답하기가 어려운 세태가 되었다. 병역법의 강제력 때문에 할 수없이 시간을 때우고 있다 함이 어찌면 정직한 답일지 모른다. 그래서 권세와 돈 있는 분들과 그 자제들의 병역면제 비율이 그토록 높은 것일까?

만약 광복이후 민족사적 정통성과 정체성을 바로 세워 철두철미 교육해 왔다면 아무리 고위간부들 거의가 친일분자들로 구성됐다 하더라도 개과천선의 엄격한 재교육을 통해 감히 군사독재가 불가능했을 것이며 나라의 모든 분야가 경이적으로 발전 이미 선진국에 진입했을 것이다. 위대한 자기정체성의 발견은 자부심의 원천이며 발전의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국군의 날을 어떤 의미를 지닌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는가를 보면 국군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다. 대한민국국군은 어떤 민족사적 사명과 의의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아무리 세월

이 흘러도 바뀌거나 변치 않을 국군 최대 최고의 자랑거리와 가치는 무엇인가 등의 의미가 상징적으로 담겨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10월1일 국군의 날은 이승만 정부가 친일세력 일색인 국무회의에서 6.25전쟁 중 국군이 최초로 38선을 돌파 북진한 날을 기념한다며 간단히 정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한미방위동맹이 체결된 날이기도 하다.

국군의 날이 담고 있는 의의는 장병 정신교육과 군대문화의 핵심내용이며 국민의식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군의 항일 무장 투쟁사를 무시 삭제해버리고 동족상잔의 부끄러운 6.25전쟁에 방점을 두어 국군의 날을 설정 오로지 대북적대의식 고취의 근거로 삼아 왔다는 것은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수치요 과오다. 더욱이 그간의 역대정권 모두가 군대개혁의 결정적 내용인 이 중요한 문제를 손 놓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한다.

항일 독립전쟁의 구심체였던 광복군의 창설기념일인 9월17일을 국군의 날로 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하다. 이는 조국광복을 위해 혈투순국하신 선조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다. 이로서 장병들은 국군에 대해 애착과 진정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국군에 대한 애정과 애착 그리고 자존심이 없다면 어떻게 나라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칠 수 있겠는가?

## 민족적 자존심 회복 시급

북한이 비록 경제적으로 극도로 피폐 열악한 조건의 1인 독재체제 하에 놓여있지만 쉽게 붕괴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바로 인민군이 빨치산이라는 독립운동가 세력에 의해 건군되었다는 강한 자존심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광복군이야말로 좌우를 아우르는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 항일자주 독립 전쟁을 주도해온 자랑스러운 군대임에도 친일매국세력은 이를 무시 목살하고 국군의 정체성을 깡그리 부정해왔다. 그들은 미 군정청이 1945년 12월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을 주축으로 설립한 '군사영어학교'가 국군의 효시이며 1948년 설치된 국방경비대가 국군의 모태라고 강변한다.

인적 친일청산의 핵심 대상인 그들이 지금까지도 군 원로로 대접 받으면서 군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런 나라가 세상 어디에 또 있겠는가? 이미 놓여버리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적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제도적, 정신적 친일 청산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국군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자.

## | 특별기고 2 |

독도수호는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온 우리 국군에게 부여된 주요당면 과제다. 친일청산의 다부진 정신으로 보다 결연하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장병들의 뇌리에 철저히 각인되도록 교육해야한다.

특히 친일기회주의적인 정치권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일군사협력은 1907년 한일신협약의 재판처럼 되어 일본군을 한반도에 끌어들이고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교란하는 불씨 될 우려가 있다. 군 당국은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민족자주독립정신의 의지와 자존심을 발휘하여 지혜롭게 판단 대처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㉞

# 5.16은 한국사회를 어떻게 피폐화 시켰나

## - 5.16 쿠데타 50년을 되돌아 본다



이 부 영  
민주평화복지포럼 상임대표

### 4월혁명을 짓밟은 5.16 쿠데타

지금으로부터 꼭 50년 전인 1961년 3월 초순은 아직 추위가 덜 풀렸지만 대학가는 갓 입학한 새내기들의 싱싱한 숨결로 뜨거웠다. 한반도에서 최초로 시민의 힘으로 전제정권을 무너뜨린 4월혁명의 흥분과 열기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던 그 50년 전이었다.

낮에는 선배들 따라서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2대 악법 폐지하라!’ 등 등의 펼침막을 들고 거리 시위에 참여했고, 저녁에는 대학가의 막걸리 집에 둘러 앉아 설익은 토론으로 밤을 지새웠다. 며칠 전까지 입시공부 하느라고 지쳤던 신입생들에게는 대학의 그런 분위기가 정말 자유였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출구로 보였다.

저녁노을처럼 강렬했던 푸른 자유의 추억은 두 달 만에 끝났다. 어느 날 군사혁명이 일어났다고

## | 광화문 어귀에서 |

하면서 자고 일어나니 딴 세상이 되어 있었다. 대학 정문에는 기관총좌가 버티어 섰고, 신입생들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증을 ‘혁명’ 붉은 완장을 찬 군인들에게 보여야 학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 만발하여 진동하는 라일락 향기는 오히려 죽음의 냄새를 닮은 듯했다. 영문 모르는 신입생들은 교수님들이, 선배들이 왜 사라졌는지 영문도 모르고 저희들끼리 모여 웅성거리기만 했다.

“ 때로는 서로 대립·충돌하면서, 때로는 뒤엎기면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일궈냈다. 그러나 5.16은 힘으로 4.19를 제압해 왔고, 4.19는 5.16에 저항해 왔다.”

우리들의 대학생활은 이렇게 시작됐다. 그 뒤 필자 자신이 군복무를 했어도 군복은 언제나 5.16 쿠데타 첫날 느꼈던 그 먼 것, 가까이 하기 두려운 것으로 여겨졌다. 우리 세대 대다수에게는 그 뒤 박정희 시대와의 불화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대학 생활은 군정 반대, 한일협정 반대 6.3학생운동, 한국비료 밀수 규탄으로 이어졌고, 졸업 뒤 언론계로 진로를 정한 사람들에게겐 언론자유와 그 수호운동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언론계는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출발부터 일상적 감시와 통제 아래 연탄가스에 중독된 듯 순치되다가 3선개헌과 유신체제를 거치면서 온통 체제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관계나 재계, 그리고 학계로 나아간 인사들은 오래 계속된 군부통치에 그럭저럭 적응했고 나름의 출세한 인사들도 많았다. 그러나 우리 세대 마음 속 깊이 자리 잡은 5.16쿠데타에 대한 거부감은 지금도 여전하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5·16 쿠데타는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는 악몽으로 남아 있다.

## 32년 군사독재의 시발

지나온 50년 동안 우리 현대사는 4.19와 5.16의 양대 산맥으로 굽이쳐 왔다. 우리의 모든 가치와 현실은 양대 산맥으로 나뉘어 왔다. 때로는 서로 대립·충돌하면서, 때로는 뒤엎기면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일궈냈다. 그러나 5.16은 힘으로 4.19를 제압해 왔고, 4.19는 5.16에 저항해 왔다.

친일적이고 극우적인 박정희 군부독재는 18년여에 걸친 장기독재를 펴는 동안, 정치·경제·문화·종교·언론 등 광범한 동조세력을 형성하고, 학생·지식인들의 저항을 억압하면서 노동자·농민·도시서민들을 희생시켜 재벌특권경제를 구축했다. 그에 대한 가장 극적인 저항이 1970년에 있었던 전태일의 분신 항거였다.

어떤 사건보다도 전태일 열사 분신자결사건은 박정희 군사독재를 통상적인 독재-반독재의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일깨움을 주었다. 철저하게 재벌 중심의 군사독재였던 박정희 정권은 노동3권을 박탈하고 노동조합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가 군부와 재벌의 정경유착과 특혜경제였다. 군부와 재벌, 그리고 그를 뒷받침하는 정치, 사법, 언론, 문화의 상부구조가 유신체제 등의 폭압 통치구조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런 지배체제는 지역차별적이고 민족분열적이었으며, 정치적 진보세력에게는 국가테러를 서슴치 않았다.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집단은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도시 서민층이었다.

군부와 재벌은 지역, 계층, 이념적으로 철저한 벽을 쌓은 양극구조를 구축했다. 박정희 독재는 10·26으로 무너졌지만 박정희 개인이 사라졌다고 해서 그 강력한 구조물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독재가 32년이나 계속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 32년 동안 반유신운동, 광주민주항쟁, 87년 6월항쟁이 이어졌다.

90년대 들어서 박정희 시대의 유산에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파도가 밀려들면서 우리 사회가 양극화-격차사회로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를 어처구니없게 만드는 것은 이런 양극화-격차사회로 빠져들어 가면서도 “박정희-전두환 시대의 탄압과 독재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되었고 잘 살게 되었다”느니 “한국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된다. 두들겨 패야 한다”는 등 야만적이고 자기모멸적인 의식을 조장하고 있다. 친일·극우적인 박정희 시대가 대물림한 일제식민지 잔재이다.

이런 세력은 끊임없이 독재회귀, 분단대결, 지역차별, 노동천시의 성향을 드러내곤 한다. 이 세력은 2012년에 <박정희 시대>를 재현하려고 본격적으로 꿈틀거리고 있다. 그 성향은 끊임없이 파시즘을 향한 충동으로 몸을 떨고 있다. 최근에도 박정희 시대의 민주주의, 인권 탄압으로 사형당하고 고문당하고 징역살이한 사람들에게 대한 판결이 무죄 선고 되고, 긴급조치들이 줄줄이 위헌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도 독재를 향한 향수, 파시즘을 향한 충동은 그칠 줄 모른다.

곧 반세기 전의 그 비극이, 그 악몽이 다시 우리 곁을 배회하고 있는 것이다. 50년 전의 총칼과 탱크가 아니라 돈과 신문·TV·SNS를 가지고 청년과 노년을 가리지 않고 위협하고, 설득하고 있다. <박정희 시대> 때문에 잘 살게 되었으니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무관심하고 잊고 있는 동안에 설득하면서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 박정희 시대 최악의 유산

우리의 오늘은 결코 독재자 박정희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른바 5.16 주체세력은

## | 광화문 어귀에서 |

친일, 극우 군부세력으로서 미국의 든든한 방패 뒤에서 한국 사회를 ‘개발도상국 발전 모델 하우스’로 변조했다. 그 모델 하우스는 첨예한 분단대결을 오히려 억압기제로 활용하여 민주주의, 인권, 노동권 등을 탄압함으로써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시킨 결과물이었다. 그러므로 그 체제는 당연히 분단대결, 양극화-격차사회, 독재회귀 성향을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울러 독재와 탄압 덕택에 경제성장과 번영이 가능했다는 왜곡된 신화도 만들어냈다. 결과만을 강조하다보면 독재가 정당화될 수 있고, 역사가 왜곡된 채 이해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수많은 노동자, 농민, 학생과 지식인들의 노력과 희생,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1990년대 들어서 이미 지역, 계급, 세대, 이념적으로 양분된 한국 사회는 다시 밀려드는 세계화·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밀려 양극화-격차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앞선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진행되었던 신자유주의 추세는 현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서 극도로 위험한 수준에 접어들고 있다. 박정희 개발독재 유산에 신자유주의의 질곡이 겹친 것이다. 느리고 인색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으로는 신자유주의화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기에 그런 사태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 시대 개발독재의 그림자는 아직도 우리 사회를 이렇게 양지와 그늘로 양분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봄 이집트, 튀니지, 리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주화혁명이 드러내고 있듯이, 전 세계적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정세의 지각변동이, 특히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세력조정이 분단대결과 양극화의 질곡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사회에 어떻게 투영될지도 근심꺼리이다.

우리 역사의 중요한 시기들 동안에, 한반도 내부의 세력들이 분열되었거나 국제적 세력변동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을 경우 나라가 망했거나 외침을 당했다. 박정희 분단독재의 후예들은 미국의 패권구도가 변치 않을 것으로 믿으면서 통일보다는 분단을, 화해·공존보다는 대결을 추구해 왔다.

주변 강대국들 사이의 세력대결 또는 세력조정을 건디어 내려면, 남북 양측 사이의 통일은 못되더라도 때를 기다리면서 양측의 공존과 상생을 이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만 중국에는 남북의 재결합을 이뤄낼 계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인 바, 결론적으로 오늘의 분단대결 체제는 극복해야 할 박정희 군부독재의 최악의 유산이 된 것이다.

5.16 쿠데타 50년! <박정희 시대>의 실상과 왜곡된 그 허상, 그 악의 유산을 점검하여 내일의 좌표를 제대로 설정해 보는데 큰 관심을 돌려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이다. ☎





#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한국 근·현대사」와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 비교 분석



신진균  
단성고등학교

## 1. 글을 시작하며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92주년이 되는 해이다. 1919년 4월 3·1운동 이후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립된 임시정부는 국호를 대한민국이라 칭했으며 10개조로 된 대한민국 임시헌장도 공포하였다. 임시정부는 일제에게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자주 독립 국가를 세우기 위해 끊임없는 독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임시정부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2008년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조직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벌였다. ‘건국’의 기준을 1948년으로 잡은 이유로 첫째 ‘우리역사에서 처음으로 1948년 국민 주권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을 건국’ 하였고, 둘째 ‘우리역사에서 처음으로



헌법을 제정하고 국가를 세웠다.’는 것, 셋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어 현재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것은 대한민국을 건국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sup>

이러한 논리는 결과적으로 임시정부에 대한 의의와 역할을 폄하하고 통일을 염두에 두지 않는 현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이다. 광복이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독립운동의 구심점 내지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미군정으로부터도 임시정부는 찬밥신세로 전락했던 역사적 경험을 이제 우리 스스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면서 역사교육이 최대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담은 교과서 검정 승인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 당국과 집권여당으로부터 한국사의 필수과목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역사교육 강화 방안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임시 정부에 관한 역사교과서 서술을 비교·검토해 봄으로써 역사교육의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 II.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한국 근·현대사』와 『한국사』 교과서 비교 분석

6종의 『한국 근·현대사』(이하 『근·현대사』) 교과서 중에서 금성을 분석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금성 교과서가 뉴라이트의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며, 『근·현대사』 교과목을 가르치는 전국 1,716개 고교 중에서 889개 학교(2008년 기준)가 사용하여 52%라는 가장 높은 채택률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국사』 교과서도 모두 6종인데, 필자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채택한 미래엔 컬처그룹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 1. 단원의 목차 구성

현행 『근·현대사』교과서의 ‘독립운동사’ 부분 중에서 가장 많은 서술 분량을 차지하고

1) 한시준, 대한민국 ‘건국 60년’, 그 역사적 모순과 왜곡, 한국 근·현대사연구 46, 한국 근·현대사학회, 2008, 236-237.

있는 독립운동단체는 임시정부이며,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주제아래 독립된 단원으로 서술하고 있다. 서술 내용의 범위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던 1910년대 말부터 독립운동의 중추기관으로 활동하던 1920년대 말까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물론 1930년대 이후 1945년 광복까지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해서는 단원과 주제를 달리하여 서술하고 있다.

### 임시정부 관련 단원의 목차구성 비교

한국 근·현대사(금성)	한국사(미래엔 컬처)
<p>3. 민족 독립 운동의 전개</p> <p>1장 일제 식민 통치와 민족의 수난</p> <p><b>2장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b></p> <p>–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p> <p>3장 무장 독립 전쟁의 전개</p> <p>– 의열단과 한인애국단의 활동</p> <p>–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p> <p>4장 사회 경제적 민족 운동</p> <p>5장 민족 문화 수호운동</p>	<p>Ⅵ.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p> <p>1. 팽창하는 제국주의와 민족의 저항</p> <p>2. 일제의 억압과 수탈은 어떻게 전개되었나?</p> <p><b>3. 3·1 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b></p> <p>4. 나라 안에서 다양한 민족 운동을 전개하다</p> <p>5. 무장 독립 전쟁의 불길이 치솟다</p> <p>Ⅶ. 전체주의의 대두와 민족 운동의 발전</p> <p>1. 전체주의 국가의 등장과 제2차 세계대전</p> <p>2. ‘황국 신민화’ 구호 아래 민족의 희생을 강요당하다</p> <p>3. 사회 운동의 변화와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의 전개</p> <p>4. 줄기차게 전개된 무장 독립 전쟁</p> <p>– 한인 애국단, 항일 투쟁의 불을 지피다</p> <p>– 한국광복군, 연합군의 일원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다</p>

우선, 단원 구성에서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독립운동사’ 부분의 목차 구성이 다르다. 『근·현대사』는 ‘민족 독립 운동의 전개’라는 대단원을 설정하여 독립운동사를 다루고 있는데 비해, 『한국사』는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와 ‘전체주의의 대두와 민족 운동의 발전’으로 2개의 대단원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단원 구성 방식의 차이



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계사와의 연계성을 한층 강화”하였다는 한국사 과목의 내용 선정 및 목적과도 관련이 있다.<sup>2)</sup> 교육과정의 단원 개관에서 “일제가 만주를 침략하는 1931년부터 제2차 세계 대전이 종식되는 1945년 8·15 광복까지를 다룬다.”<sup>3)</sup>는 지침에 따라 1931년 만주사변 즉, 전체주의의 대두라는 세계사적 흐름을 적극 반영하여 일제 식민지 시기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근·현대사』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원 구조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즉, 7차 교육과정에서는 대단원 ‘민족 독립운동의 전개’ 아래 중단원으로 ‘일제의 침략과 민족의 수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 정부’, ‘무장 독립 전쟁의 전개’, ‘사회 경제적 민족 운동’, ‘민족 문화 수호 운동’을 설정하고 있다.<sup>4)</sup> 이러한 현상은 단원 구성 및 소단원 제목까지 교육부가 세세하게 정해놓고 그 기준의 부합여부에 따라 검정을 통과시키기 때문이다. 3장에서는 1930-40년대의 무장 독립 전쟁을 구성하고 있는데, 1930년대 임시 정부의 활동으로 한인 애국단을 소주제로 다루고 있다. 1940년대의 독립운동은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의 활동을 배치하여 시기별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국사』의 경우도 『근·현대사』와 마찬가지로 1930년대는 한인 애국단, 1940년대는 한국 광복군의 활동을 배치하고 있는데, 『한국사』의 구성이 통사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의열단의 활동을 다른 단원에서 다루고 있는 점이 다르다.

한편, 『근·현대사』의 단원명은 교과서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어로 비교적 짧고 명료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한국사』의 경우에는 소단원에서 의문형 혹은 서술식으로 쉽게 풀어줌으로써 학습자의 흥미 유발을 돕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 2. 주제별·시기별 서술 내용 비교 분석

### 1) 임시정부의 수립배경과 통합과정

2) 교과부, 2009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75쪽.  
3) 같은 책, 92쪽.  
4)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 해설서』, 2000, 182쪽.

우선 소단원 제목을 보면, ‘임시 정부의 수립’ 과 같은 형식이 아니라 『근·현대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깃발 아래 하나로’, 『한국사』는 ‘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설정함으로써 학습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풀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다만 『근·현대사』의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지침을 충실히 따라 여러 임시 정부가 상하이 임시 정부로 통합되는 과정을 제목에 반영하고 있는 반면, 『한국사』의 경우에는 “민주 공화제를 표방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의의를 인식한다.”는 개정 교육과정의 지침에 따라 임시 정부 수립의 의의를 강조하는 제목을 사용한 것이 다르다.

두 교과서 모두 임시 정부의 수립 배경에 대해 3·1운동을 강조하고 있다. 『근·현대사』는 “민족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고 독립 운동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통일된 지도부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수립되었다.”<sup>5)</sup>고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한국사』의 경우에는 “...3·1운동을 계기로...임시정부가 수립됨으로써 19세기 후반부터 이어져 온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운동이 첫 결실을 맺었다.”<sup>6)</sup>고 서술함으로써 개항이후 계속 이어져 온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운동의 결과로 임시정부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임시정부의 통합과정에 대해서는 『근·현대사』의 경우 “임시정부의 위치 문제가 독립 운동 방법론-외교론과 독립 전쟁론-과 맞물려 있다.”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물론 『한국사』도 위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독립 운동 방법에 따른 위치 선정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즉, 『근·현대사』의 경우에는 외교론자들이 왜 상하이에 두자고 주장했는지, 독립 전쟁론자들이 왜 반대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어느 교과서 서술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교과서관이나 역사교육관, 그리고 학생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교과서를 절대 진리로 보고, 역사수업에서 교사는 지식의 전수자로, 학생은 교사의 설명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존재로, 그리고 교과서 서술을 암기의 대상으로 본다면, 보다 친절한 서술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역사교과서를 다양한 역사해석의 관점 중의 하나로 보고, 교사와 학생도 역사인식의 능동적 구성자로 본다면, 교과서 서술에서 감춰진 저자의 의도나 관점,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비판적으로

5) 김한중 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주)금성출판사, 2003, 174쪽.

6) 한철호 외, 『고등학교 한국사』, (주)미래엔 컬처, 2010, 237쪽.



읽어내고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역사수업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 2) 임시정부의 의의

『한국사』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6) 일제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단원에서 (가) 단원의 개관으로 “...3·1운동의 영향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의의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sup>7)</sup>고 명시한 뒤, (나) 교수·학습 내용에서 “...민주 공화제를 표방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의의를 인식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8)</sup> 임시정부 수립 의의에 대한 『한국사』 서술은 『근·현대사』와 달리 “대한 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라는 별도의 소항목을 두고 비교적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근·현대사』는 교육과정의 ‘독립운동의 중추 기관 역할을 담당’ 하였다는 지침에 따라 ‘독립운동사’에서 임시 정부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세력이 분열되고,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중추 기관으로 다시 세력을 회복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는 서술을 통해 임시 정부의 한계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6차 교육과정의 국사 교과서가 국민대표회의 결렬 이후에도 임시정부가 여전히 독립운동의 중심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서술한 것과 달리, 『근·현대사』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은 물론 임시정부의 한계점을 명확히 서술함에 따라 획일화된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교육에서 벗어났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sup>9)</sup>

한편, 『근·현대사』는 교육과정에서 규정한대로 “공화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에 기초한 헌법을 공포하였다.”고 간략히 서술하고, 부족한 본문 서술을 보완하기 위해 ‘한걸음 더 다가서기’ 코너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 헌장’ 10개조를 추가로 신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에 비해 임시정부 수립의의를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보인다. 물론 민주공화제

7) 교과부, 사회과 교육과정 해설, 90쪽.

8) 같은 책, 91쪽.

9) 손화성, 「‘독립운동사’ 서술을 둘러싼 논쟁과 대안-현행 『한국 근·현대사』교과서와 기파랑 “대안교과서”를 통하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4쪽.

나 삼권분립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본문에 비해 ‘임시 헌장 10개조’ 전문을 제시한 것은 보조코너가 본문을 압도하는 느낌이고,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 행정기관인 국무원, 사법기관인 법원으로 구성된 임시정부의 조직에 대한 별도의 서술이 없어서 교사의 추가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두 교과서의 이러한 차이는 소단원의 제목에서 추론할 수 있듯이 『근·현대사』의 경우는 임시정부의 수립 의의나 법통성보다는 임시정부의 수립과 통합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민족해방의 여러 노선이 하나로 통합되는 데 진통을 겪었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생각된다.<sup>10)</sup>

### 3) 1920년대 임시정부의 활동

임시 정부의 초기 활동에 대해서는 두 교과서 모두 큰 차이점 없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임시정부의 활동을 신고 있다. 교육과정은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에 대해 “연통제 조직, 군자금 모음, 외교활동, 독립신문 간행 등으로 이해한다.”고 비교적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비록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초기 임시정부 활동에 대한 지침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사』의 서술도 『근·현대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굳이 차이점을 꼽는다면, 『근·현대사』에서는 ‘애국’ 공채를, 『한국사』에서는 ‘독립’ 공채로 용어의 표현이 달라졌다.

두 교과서 모두 임시 정부의 주요 활동으로 외교활동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김규식의 파리 강화회의 파견, 국제 연맹이나 각종 국제 평화회의 대표파견, 구미위원부의 활동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 활동의 성과에 대해 『한국사』에서는 쑨원을 수반으로 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점이나 소련의 레닌으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 받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비해, 『근·현대사』에서는 외교 활동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고만 서술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또한 외교활동만 서술하고 있는 『근·현대사』와는 달리 『한국사』는 임시 정부의 초기 활동으로 외교활동 뿐만 아니라 무장 활동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근·현대사』의 경우에는 임시 정부의 무장 활동에 대해

10) 박주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와 대안교과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서술체제 및 인식 비교 분석』,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25쪽.


 특집

별도의 단원에서 “1920년 9월 임시 정부 직속의 독립군 부대로서 광복군 총영이 설치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럴 경우 학생들은 임시 정부의 초기 활동에 외교활동만 존재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 임시정부의 초기 활동이란 주제를 놓고 보면, 역사를 단절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구조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사』처럼 외교활동과 무장 활동을 같은 단원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주제명을 보면, 교육과정의 지침을 충실히 따른 근현대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서 연통제, 교통국, 군자금 모금, 외교활동, 독립신문, 국민대표회의 소집 등을 한꺼번에 다루고 있지만, 한국사는 ‘비밀 행정 조직을 만들어 독립 자금을 모으다’와 ‘외교활동과 무장 활동을 전개하다’, 그리고 ‘국민대표 회의를 통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다’로 세분화하고 있다. 두 교과서의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한 서술비중은 모두 3쪽 분량으로 같지만, 소주제로 세분화하여 본문 서술을 많이 할애한 『한국사』의 구성과 서술이 학생들에게 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근·현대사』의 본문 서술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은 ‘탐구 활동’과 ‘인물 엿보기’, 그리고 ‘한 걸음 더 다가서기’ 등 보조코너의 비중이 많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읽기자료나 보조코너를 두어 흥미를 유발하고 탐구활동의 비중을 높인 것은 이 교과서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학생 입장에서 임시 정부 초기의 활동을 이해한다는 관점에서만 보면, 소주제의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도록 한 『한국사』의 구성과 서술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국민 대표 회의에 대해서는 두 교과서 모두 본문과 ‘한걸음 더 다가서기’ 혹은 ‘탐구활동’, ‘용어 해설’ 등 보조코너를 통해 소집 배경과 논의 내용,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구심점을 잃고 약화된 이후 독립운동의 방향이 외교중심에서 무장투쟁 중심으로 옮겨가는 노선의 변화까지는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 『근·현대사』의 경우, 국민 대표 회의에 참여한 주요 대표들의 이념적 성향을 구별하지 않고 독립운동 노선 및 지역 세력으로 구분한 것은 사회주의 계열의 참여가 없었던 것처럼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한국사』에는 국민 대표 회의 소집 배경으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 간의 갈등도 드러났다.”(240쪽)고 언급함으로써 이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 대표 회의 소집이후 임시 정부의 새로운 진로 모색에 대하여 두 교과서 모두 임시정부의 침체, 이승만 탄핵, 임시정부 지도체제의 변화 등을 다루고 있지만, 『근·현대사』는 ‘민족 유일당’ 운동의 전개와 임시 정부의 이동과 총칭 정착을 언급한 것에 비해, 『한국사』는 한인 애국단 조직



을 서술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 4) 1930년대 임시정부의 활동

1930년대 임시정부의 활동은 한인 애국단을 중심으로 서술될 수밖에 없다. 국민대표 회의 결렬 이후 침체된 임시 정부의 활로를 모색하고, 1930년대 만보산 사건과 만주사변으로 중국인들의 반한감정이 고조되면서 중국내 항일 독립운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임시 정부의 노력으로 한인 애국단이 조직되었다. 특히 1932년 이봉창, 윤봉길의 의단 의열 투쟁은 당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나중에 임시 정부의 한국광복군 조직에도 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국사』는 ‘전체주의의 대두와 민족 운동의 발전’이라는 대단원 아래 중단원으로 ‘즐거우게 전개된 무장 독립 전쟁’을 배치하고, 그 아래 ‘한인 애국단, 항일 투쟁의 불을 지피다’라는 소주제를 설정하고 있다. 나아가 한인 애국단의 성립 배경을 서술한 뒤, 이봉창과 윤봉길 의거를 별도의 항목으로 서술하여 학생들이 한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이것은 『한국사』의 단원구성 방식이 시대의 여러 측면을 분석적으로 구조화시켜서 접근하기에 유리한 ‘대단원-중단원-소주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근·현대사』는 대단원-주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 방식은 각 주제를 하나의 흐름으로 서술 분량의 제약에서 좀 더 자유롭게 서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근·현대사』는 대단원-‘민족 독립 운동의 전개’ 아래 주제 2 ‘의열단과 한인 애국단의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그 결과 한인애국단의 활동을 별도의 항목구분 없이 통괄 형식으로 이봉창, 윤봉길 의거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한인 애국단의 활동에 대한 서술 분량에서도 두 교과서의 차이가 있다. 『한국사』는 총 2쪽 분량으로 1쪽에 그친 근현대사의 2배 분량으로 할애하고, ‘그때 그 인물’이라는 보조코너에서 이봉창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반면, 『근·현대사』는 ‘한 걸음 더 다가서기’라는 보조코너에서 “민중들의 직접 행동을 주장한 무정부주의”라는 설명글을 배치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앞쪽에 서술한 의열단과 관련 있는 것이지만, 한인 애국단의 활약에 대한 서술 아래 배치함으로써 마치 한인 애국단의 사상적 기반이 무정부주의인 듯 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5) 1940년대 임시정부의 활동

『근·현대사』의 경우,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한국광복군’이라는 주제 하에 ‘독립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한국광복군의 창설과 활동’이라는 소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는데, ‘독립을 준비하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라는 소주제명과 본문 서술 간에 약간의 불일치 현상이 보인다. 1930년대 여러 정당 및 단체들의 이합집산과 1940년 한국 독립당으로의 통합 과정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서술함으로써 학생들이 정당(단체) 이름을 기억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광복군 창설에 대하여 “한국광복군은 조선의용대를 흡수 통합하여 군사력이 증강되었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7차 교육과정의 지침대로 두 교과서 모두 조선의용대의 합류를 강조해서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사』는 김규식 등 민족 혁명당과 사회주의 계열 단체의 인사들도 임시 정부에 참여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반면, 『근·현대사』는 아예 언급이 없다. 다만, 『근·현대사』에는 ‘한국광복군 행동 준승 9개항’을 중심으로 중국 국민당 정부의 원조와 간섭을 동시에 서술하고 있는 것이 『한국사』와 다른 점이다.

한국광복군의 활동에 대해서는 대일선전 포고, 인도·미얀마 전선 투입, 국내 진공 작전 등을 중심으로 두 교과서 모두 비슷한 설명을 보여주고 있다. 1940년대 미주 지역에서 임시 정부와 연계 속에서 재미 한족 연합 위원회 활동-한인 국방 경위대(일명 맹호군), 외교 위원회 활동-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한국사』에 비해 “국의 이주 동포의 활동과 시련”이라는 별도의 주제를 설정하고 있는 『근·현대사』에는 오히려 언급이 없다.

## III. 글을 마무리하며

그 동안 일제 식민지시기에 대한 역사 교과서 서술은 민족 독립 운동사로만 서술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제 식민지시기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민족 독립 운동사의 관점이 반영된 ‘침략과 저항’이라는 설명틀은 민족을 기준으로 이분법적인 흑백논리를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역사 서술의 주체를 ‘우리 민족’으로 규정함으로써 식민지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였다. 지나친 민족 담론은 광복이후 남북

분단 상황에서 반공주의로 전화되어 민족의 이름으로 사회주의자를 반민족 주체로 규정함으로써 일제시기 독립운동의 또 다른 사실을 애써 외면하였다. 3·1운동을 정통적으로 계승한 것이 임시정부이며, 이를 중심으로 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저항이 계속되었다는 역사인식으로 민족의 정통성을 세우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은 6차 교육과정의 『국사』→7차 교육과정의 『근·현대사』→2009 교육과정의 『한국사』로 바뀌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극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임시정부 법통론은 독립운동의 객관적 사실과 조건을 무시한 채 특정단체나 인물을 중심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결과 전체 독립운동의 실상을 왜곡, 축소시키고 나아가 독립운동의 분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987년 개정된 헌법 전문에 대한 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해방 뒤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은 헌법 전문과 달리 임시정부 법통론이 부정되는 역사였다.<sup>11)</sup> 해방 정국에서 김구를 비롯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던 임시정부 세력은 설 곳을 잃었고, 남북한 집권세력에 의해 역사의 무대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던 것이다. 물론 임시정부가 끝까지 우리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독점하지는 못했다. 임시정부는 상하이 시기(1919-1932), 이동 시기(1932-1938), 충칭 시기(1939-1945)를 거치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갔다. 때로는 명실공히 독립운동의 대표단체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였고, 그 반대로 '정부'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임시정부에 대한 교과서 서술은 3·1운동에서 표출된 민족의 열망인 민주공화정부를 우리 역사상 최초로 수립한 사실을 강조하면서도 임시정부에 대한 역할과 평가는 시기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sup>12)</sup>

임시정부나 독립운동사에 대한 교과서 서술에 대한 분석이나 검토 작업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교과서 서술을 비롯한 역사교육의 방향을 결정짓는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2009 교육과정은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3과목으로 축소되었고 모두 선택과목이 됨으로써 역사교육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자국사-외국사 교육 간의 역불균형 상태를 가져왔고, 극단적인 경우 역사 관련 과목을 1시간도 배우지 않고도 고등학교 과

11)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윤대원, 「임시정부법통론의 역사적 연원과 의미」, 『역사교육』 110, 2009.를 참고할 것.

12) 김희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와 정통성」, 『지방행정』 48, 1999, 334쪽.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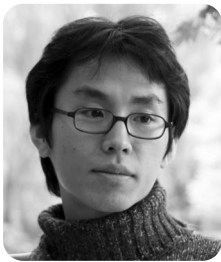
정을 마칠 수도 있다. 결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사에 관한 보다 나은 역사 교과서 서술을 위해서는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발행제도가 정치논리가 아닌 교육의 논리로, 획일화된 역사인식을 강요하기보다는 역사교육 주체들의 다양한 해석과 관점을 담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되는 것이다. 

레지스탕스 영화 읽기



영화 &lt;색, 계&gt;,

역사와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조건



이 두 희 | 자유기고가

이안 감독의 <색, 계>(2007)가 처음 개봉했을 때, 영화는 <와호장룡>(2000)이나 <브로크백 마운틴>(2005)의 감독으로서는 조금 낯설어 보이는 정치적 소재로써 그리고 위험한 수위의 정사 장면으로 적지 않은 화제가 되었었다. 아마도 그래서인지 그 후로 이 영화의 제목은 치정관계과 얽힌 정치스캔들에 대한 하나의 비유로서 쓰일 때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정작 <색, 계> 이야기는 센세이셔널한 정치적 가십거리보다는 통속적인 멜로드라마의 그 것에 더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영화의 배경에는 세계대전의 와중에 가장 국제적이고 정치적이었던 도시 중 하나였던 상하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다시 말하자면 이 영화는 일본점령기의 상하이에서 친일괴뢰정부의 수뇌에게 신분을 숨기고 접근한 젊은 여성 항일조직원에 대한 이야기로서 하나의 정치 스파이물이자 한편으로는 남녀 간의 얽혀버린 사랑이라는 그저 범속한, 그렇기에 한편으로는 너무도 인간적인 내용을 담은 영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레지스탕스 영화 읽기



사실 영화 <색,계>는 장아이링이라는 중국 여류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다만 작가 자신이 작품의 배경과 같은 시대의 상하이에서 일본의 점령기와 그 패망을 겪은 후에 훗날 미국으로 망명하여 완성한 동명의 작품 <색,계>는, 수십 페이지 정도의 분량에 지나지 않는 단편 소설로서 영화의 굵직한 줄거리와 세부사항 묘사에 비해서는 경쾌할 만큼 빠르고 아이러니한 결말을 지닌 한 시대의 스케치 같은 작품이다. 그리고 또 이 소설 작품에도 역시 또 다른 원작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유사한 실제 사건이 있었던 것이다. 바로 1939년 12월 21일, 당시 난징 괴뢰정부의 정보기관에서 수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덩모춘(1903~1947)을 표적으로 상하이의 사교계의 매력적 여성이었던 정핑루(1918~1940)가 연루되었던 암살기도 사건이 그것이다. 작가 장아이링이 이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격렬했던 중국현대사의 한 장면은 이렇게 소설과 영화를 통해 다시 반복되고 기억된다. 다만 그 과정들에는 실화에서부터 소설로 그리고 소설에서 영화로 어떤 작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점들이 있다. 이를테면 실제 사건에서 장제스의 국민당 정보조직의 포섭에 의해 덩모춘의 암살기도에 동참한 정핑루가 그를 유인한 것은 모피코트집이었고, 소설과는 달리 위험한 순간에 수상한 낚새를 눈치 채고 급하게 몸을 피한 것은 덩모춘 자신의 운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장아이링의 소설에서는 암살기도 장소가 여자의 선물을 사기 위한 보석상으로 바





핀다. 그리고 작전이 실패한 이유 역시 결정적 순간 감정이 흔들리면서 여자가 남자를 도망치게 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여기서 다이아몬드 반지는 사랑이라는 환상 앞에서 무너지는 여주인공의 심리에 대한 문학적 장치로서 작가에 의해 설정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그리고 소설 속에서는 여자에 대한 처형을 남자가 직접 명령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덩모춘은 정핑루를 풀어주려고 시도하였다고 한다. 아마도 장아이링의 소설에서 달라지는 남녀의 역할과 행동은 여성으로서 작가의 입장에 따라 또 다른 진정성을 가지고 그려지는 것이리라.

그리고 이안 감독의 영화에서는 단편소설에는 없던 보다 풍부한 세부사항들이 나타난다. 인물의 성격과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들과 함께 원작에서는 가벼운 언급 정도로 그쳤던 시대적 배경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하나하나씩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40년대 초의 상하이에는 아직 서구 열강들의 차지지구인 조계가 남아있기도 했지만, 일본 점령 이후로 서서히 고립되어가고 있던 불안정한 상황의 국제도시였다. 영화에는 친일정부에 협력하는 고위관료나 상류층의 권태나 민중들의 가난과 고통, 그리고 분열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들과 함께 역사를 마주보며 고민하고 방황도 하는 풋풋한 젊은이들의 표정이 잘 담겨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러한 고층적인 태도들에도 불구하고 감독은 역사적 외연으로부터 인물들, 두 주인공의 배경과 내면 쪽으로 보다 천착하는 듯하다. 여러모로 화제가 되었던 <색,계>의 과감한 정사씬에서 두 주인공에게 주어진 환경과 인간적 조건에 대한 비유를 찾는 것이 과연 억지일 뿐일까? 왓슨 선정적이기보다는 처절한 그들의 정사는 서로가 속고 속이는 자들로서 의심을 떨치지 못하는 두 인간이 오직 자신의 피부를 통해 느낀 것만을 믿고 서로의 어두움 속으로 끊임없이 파고들고자 하는 욕망과 갈증의 몸부림은 아니었을까? 적어도 그들의 바람이 극단적인 환경에 처한 인간 누구에게나 찾을 수 있는 고독과, 그 위안 혹은 도피와 관련된 무엇이라면 그들의 이야기는 어느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닌 그저 평범한, 다름 아닌 인간의 범속한 자체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의 초기작들부터 가족으로부터 개인의 관계와 변증적인 성장




## 레지스탕스 영화 읽기



을 주제로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온 이안 감독이 그 관심사를 관계가 소멸되어가는 과정의 개인으로 좁혀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영화는 아니지만 같은 상하이를 배경으로 하여 참고해 볼 수 있는 소설로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이 있다. 소설의 배경은 <색, 계>보다는 좀 더 앞선 1927년,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와 공산당의 1차 국공합작이 끝나가고 있을 무렵이다. 군벌군을 몰아냈던 상하이의 좌파 노동자 군대가 이번에는 장제스의 국민군에 의해 무장해제와 함께 숙청을 당하던 때, 소설의 주인공들은 장제스의 암살을 기도하기도 하며 이에 저항하지만 결국 하나씩 쓰러져간다. 소설 속에서 앙드레 말로는 무도하고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도 굴하지 않는 인간 정신의 고양을 그려냈다. 극한 상황에서 부지불식간에 자신들의 실존적 조건과 존재이유에 대해서 자각하는 그 인물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사실 <색, 계>의 인물들이 보였던 자기탐닉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닮기도 하였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공통점을 극단에 이른 인간의 자기기만이라고 한다면 너무 위험한 이야기일까. 마치 당시의 유럽 역시 세계대전을 거치며 막다른 길에 출구는 없었고 실존주의라는 하나의 비약과 단절이 필요했었던 것처럼 말이다.

다만, 소설 한 부분에서는 자신들이 가진 인간의 조건과 고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부분이 있다. “말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나 말을 초월하여 몸짓이든지, 눈빛이라든지, 또는 그저 한자리에 같이 있다는 것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는 가장 뼈저린 고통은 거기에 따른 고독감 속에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또한 거기에서 해방될 수도 있는 법이다.”(앙드레 말로, <인간의 조건> 4부 중) 결국 필요한 것은 하나의 표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조건들에 대한 우리들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역사와 소설, 영화와 현실에서 이야기는 계속된다.

참고로 30년대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도 있었던 당시의 상하이는 다른 어느 곳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국제도시로서 세계사의 중요한 한 장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제국 열강들의 정치경제적 이권다툼 속에서도 새로운 아시아의 가능성이 하루하루 만들어지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 그리고 그러한 상하이의 모습은 영화적 소재로서도 충분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다. 불과 얼마 전에도 상하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하여 또 다른 허구의 세계를 만들어냈던 것도 같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가상의 풍경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한 시대의 어느 장소를 영화를 통해서 어디쯤엔가 짐작해보는 것이리라. 끝. 



100年 편지

## 벽초(碧初) 선생님께



신복룡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 벽초 홍명희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후학이 선학(先學)을 호칭할 때 호(號)를 쓰지 않는 것이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홍명희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벽초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선생님의 함자(銜字)를 입에 담는 것 자체가 반공법에 저촉되던 어두운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감히 함자를 쓰지 못하고, 아는 사람들끼리만 알도록 '벽초'라는 호를 쓰던 시절이 있었기에 거기에 익숙했던 탓으로 저도 그냥 벽초 선생님이라고 부르곤 자 합니다.

저는 스스로 좌우익의 논쟁의 어느 편에 설 입장도 아니고 또 그렇게 강단(剛斷)있게 살 용기도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분위기가 우익적인 우리 사회에서 이제까지 모든 필자들이 우파민족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이 칼럼을 써오던 관례를 벗어나서, 북한 부수상까지 지낸 분을 주제로 쓴다는 것이 그리 마음 편한 것은 아니지만, 임시정부기념사업회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았을 때 저는 고심하다가 벽초 선생님께 편지를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누군

## 100年 편지

가 “왜 빨갱이에게 ‘선생님’의 칭호를 쓰느냐?”고 항의하지나 않을까 하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글을 씁니다.

먼저 사사로운 고백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충북 괴산 출신으로서 선생님께서 사시던 곳과 아래 윗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직접 뵈 적은 없지만, 어려서부터 옛날 어른 중에는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 선생을, 그리고 현대사의 인물로는 벽초 선생님의 얘기를 전설처럼 들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3.1운동 때는 누구의 독립선언서가 마음에 차지 않아 괴산에 내려오셔서 독립선언서를 직접 지어 돌렸다는 얘기와, 왜놈들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자제분인 홍기문(洪起文) 선생을 직접 가르쳤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에는 낙질(落秩)된 [임꺽정전]을 몰래 빌려 읽으면서, 괴산 지방에서만 쓰는 사투리의 문체에 가슴 찡한 추억도 있었습니다.

그 후 제주도 없이 대학에 남아 한국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저는 선생님의 기록을 접하게 되었고, 남다른 감회와 함께, ‘책상물림 사학’이 아닌 ‘현장 사학’을 바탕으로 선생님의 행적을 글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해방정국에서의 선생님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당시 대부분의 좌파들은 순수한 공산주의자라기보다는 민족주의자들이었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었고, 특히 선생님께서 1948년 4월에 월북하여 북한에 잔류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념에 따른 선택이었다기보다는 혈육, 즉 이미 맑시스트가 되어 먼저 북한에 가 있던 아들과 따남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다고 해석함으로써 학회의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와 같은 해석을 한 것은 선생님의 이념적 확신을 과소평가하고자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선생님께서 순수한 공산주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른들 말씀에 따르면, 선생님은 아들과 15살 차이로서 형제처럼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문의 양반 댁에서 자제분과 맞담배를 피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어른들 말씀에 따르면, 민족주의자였던 선생님께서는 맑시스트였던 아드님과 이념 논쟁을 많이 하셨다더군요. 그런데 한창 논쟁이 무르익을 무렵이면 자제분인 홍기문 선생이 밖으로 나가는 바람에 논쟁의 맥이 끊어지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드님이 논쟁을 하다가 말고 왜 밖으로 나가는가를 알아 봤더니 논쟁에 과열되어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것이었고, 그것을 알고 선생님께서 논쟁할 때는 담배를 피워도 좋다고 허락하셔서 결국은 그토록 대단한 양반 가문에서 부자가 맞담배를 피웠다고 들었습니다.

## 100年 편지

결국 선생님께서 평양에 가셨다가 그곳에 남으신 것은 혈육의 정 때문이었으리라 하는 저의 해석은 학계에서 작은 논쟁이 되었고, 언제인가 펜실베이니아대학의 이정식(李庭植) 교수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수긍하시더군요. 제가 이런 논리를 편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즉 해방 정국에서 소위 좌파라는 지도자들의 아내와 자녀들



▲ 벽초 홍명희 생가

은 이미 대부분 북한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을 포함하여 허헌(許憲), 박헌영(朴憲永), 여운형(呂運亨)--, 이 분들의 아내와 자녀가 대부분 북한에 가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가족은 살리겠다는 뜻이었을까요? 나도 곧 올라갈 터이니 가족이 먼저가 있으라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인질이었을까요? 저는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이념도 혈육을 뛰어넘지는 못했다고...

가끔 명절에 고향에 가면 저는 제월리(霽月里)의 선생님의 유택을 찾아봅니다. 구거(舊居)의 뒷뜰에 있는 선영(先塋)들은 잘 보존되어 있고, 집에는 종손되는 분이 사는데, 본채만 남아 있고,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국군이 북진하면서 남은 식솔(머슴과 하인, 그리고 족친)들이 죽거나 박해를 받은 후로부터 고향 사람들의 입에서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금기로 되어버린 후 이제 젊은이들은 모르는 얘기가 되었지만 괴산 사람들은 이념의 선악이나 호오(好惡)를 떠나 선생님에 대해 회상을 많이 합니다. 부덕한 얘기가 되어 비교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기봉(李起鵬) 씨가 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괴산 사람들은 “남북한 부통령이 모두 괴산 사람이군...” 하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괴산의 수안보에 북한의 남조선전투지휘부가 설치되어 있었을 때 선생님께서 괴산을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어른들께서 두런두런 말씀하시던 것을 잠결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즐겨 찾으시던 짚 앞 제월대(霽月臺)의 풍광은 여전한데, 느티울(槐灘)의 물은 많이 줄어 쓸쓸합니다. 그 제월대 입구에 선생님을 추모하는 후학들이 문화비를 세우면서 “빨갱이의 비석을 세울 수 없다”는 우익 단체 사람들과 오랜 실랑이가 있었지만 지금은 작은 문화비가 서 있어 나그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얼마 전에 성모하러 괴산에 내려갔더니 선생님께서 사시던 인산리의 옛집자리에

## 100年 편지



▲ 충북 괴산 제월대 앞에 세워진 벽초 홍명희 문학비

한옥이 잘 복원되었는데 안내문에는 ‘홍명희 선생의 구거’라는 말을 못하고 ‘한옥 마을’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며 시대의 아픔을 혼자서 쓰다듬으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글을 마치려니 말끝이 이어지지 않고 쓸쓸함이 가슴을 누릅니다. 이별의 아픔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는 통일이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은 절망감 때문입니다. 요즘 중학생들에게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물으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학생이 40%를 넘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 망연자실할 뿐입니다. 나는 선생님이 한국전쟁의 개전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있었던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때의 전쟁은 참으로 지혜롭지 못했고, 그 업장은 60년의 상처로 아직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어찌야 하나? 가슴이 저려 더 글을 잊지 못하고 이만 줄입니다.

복지유체 후학(伏地流涕後學) 씀

##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 신임 편집위원 보임안내

지난 3월 이학노 민주당 재정사무부총장과 김봉현 조선민족대동단 사무국장이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의 신임 편집위원으로 보임되었다.

### 운영위원회 개최



지난 3월 22일(화) 본 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회의에서는 前 김위현 운영위원장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신임 운영위원장에 김정록 부회장이 선출되었으며, 2011년도 사업계획 및 기타안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였다.

### 아! 독도 그 민족혼 미술전 개최

본회 이정재 이사(남서울대 애니메이션학과 교수)의 독도관련 전시회가 서울미술관에서 지난 4월 6일부터 12일까지 열렸다.

‘아! 독도 그 민족혼 IV’ 전시회는 2009년 이후 벌써 네 번째 독도 전시회로 독도의 다양한 풍광을 그린 유화들을 선보였으며, 동도에서 서도를 바라보고 그린 가로 9.5미터, 세로 1미터 짜리 초대형 그림을 비롯해 모두 60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이정재 교수는 9월말 경 독일과 프랑스에서 전시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등에서 국외순회전을 열어 ‘독도의 문화적 선점론’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전시회 기간 동안에는 외국인들에게 독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담은 슬라이드도 상영하고 ‘독도와 문화’를 소재로 한 강연도 할 예정이다.



##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과 윤기섭 선생 학술회의 개최



지난 4월 5일(화) 서울역사박물관 대강당에서 본회와 윤기섭 기념사업회 주최로 『신흥무관학교 설립 100주년과 윤기섭 선생』 학술회의가 개최됐다. 1부 기념식과 2부 주제발표로 진행된 이번 학술회의는 이만열 前 국사편찬위원장, 이종찬 우당장학회 이사장 김삼웅 前 독립기념관장, 남만우 광복회 부회장, 등의 내빈 분들과 약 200여 명의 회원 및 일반인 분들이 참석했다.

### 「독립정신」 산행안내



「독립정신」 산악회의 5월 산행이 오는 5월 28일(토) 10시 부터 진행된다. 이번 산행 장소는 북한산 둘레길 중 순례길 코스이며, 집합 장소는 수유리아카데미 하우스 정문이다. 이번 5월 산행에 학생 및 일반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 산행일자 : 2011년 5월 28일(토) 10시
- 산행지 : 북한산
- 집합장소 : 수유리아카데미 하우스 정문
- 준비물 : 간단한 도시락
- 문의처 :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사무처 02-3210-0411
- 교통편 : 지하철 4호선 수유역 1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스 강북 01번 환승  
(마을버스 강북 01번 종점 하차)





임정서가

# 고난과 희생에 찬 애국애족의 한평생



▲ 김상덕 평전(책)

김상덕 평전 | 김삼웅 지음, 책보세(책으로보는세상)퍼냄

광복지사 영주 김상덕 선생. '반민특위위원장' 정도로만 알려진 김상덕은 우리 근현대사의 물구나무선 현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독립지사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한국을 강제로 병탄한 일제의 식민통치가 엄혹했던 시절, 유학차 건너간 적도(敵都) 도쿄에서 2.8독립선언(1919)을 주도했다가 피체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루고 나와 학업(와세다대학)도 중단한 채 중국으로 망명하여 상하이에서 만주로, 다시 만주에서 난징, 충칭으로 대륙을 전전하며 온 청춘을 민족해방투쟁에 바친 독립투사가 바로 김상덕이다. 그런 그는 지절을 지킨 다른 독립투사들과 마찬가지로 해방된 조국에서도 여전히 '목숨을 건'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 이유는, 친일파 및 민족반역자 청산작업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해방된 조국은 미군정이 즉시 점령해버렸고, 우리 민족은 해방의 감격을 누리기도 전에 다시 피정복민의 나라로 떨어지고 말았다. 친일민족반역자들은 이때를 틈타 재빨리 미군정에 붙어 면죄



▲ 반민특위위원장 김상덕

부를 받고 재기의 끈을 붙잡았다. 게다가 미군정의 낙점을 받은 이승만은 국내 정치 기반의 선점과 확대를 위해 미군정의 지침에 충실하게 따르는 한편 친일주구들을 핵심측근세력으로 끌어안았다. 미국의 지침에 따라 단정을 주도하여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친일주구들을 수족으로 부리는 대신 그들의 민족반역죄를 면죄하고 그들의 '지킴이'가 되어주었다. 반면에 김상덕이 국무위원(문화부장)으로 있던 임시정부는 온 겨레의 지지와 신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향후 정국구상에 따라 '개인자격'으로

한국하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이처럼 김구 주석과 임시정부는 정국운영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채 친일민족반역자들이 다시 판을 치게 된 세상과 힘겨운 투쟁을 벌여야 했다. 제헌의회 반민특위위원장으로 바로 그 투쟁의 한가운데에 선 김상덕은 어떤 회유와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민족반역자 처단에 혼신의 힘을 다하며 반민특위를 이끌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자신의 친일 수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겨레의 여망을 안고 의회입법으로 설치된 반민특위를 국립경찰(대부분 친일주구 출신)을 동원한 폭력으로 짓밟고 말았다. 이에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던 최소한의 공식적인 절차도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으니, 김상덕은 국회에서 통한의 사임연설을 하고 위원장직을 물러나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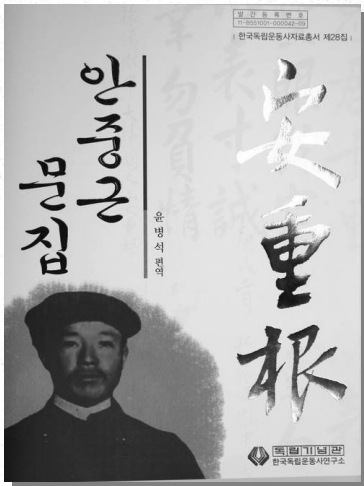
김상덕의 일생은 시종여일 애국애족의 한길이었고, 그만큼 희생과 고난에 찬 가시밭길이었다. 김상덕이 걸었던 그 길은 바로 우리 민족해방투쟁의 길, 일제잔재청산의 길 그대로다. 그래서《김상덕 평전》은 김상덕 개인을 평한 책을 넘어 우리 민족독립운동의 역사요, 민족반역자청산에 관한 기록이기도 하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험난한 역정에 동행했던 선생의 외아들 김정륙의 생생한 증언을 갈피갈피에 살려 넣은 이 책은 애국지사 김상덕의 진면목을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록이다. (C)





임정서가

# 안중근 의사의 친필을 담다



▲ 안중근 문집(책)

안중근 문집 | 윤병석 편역, 독립기념관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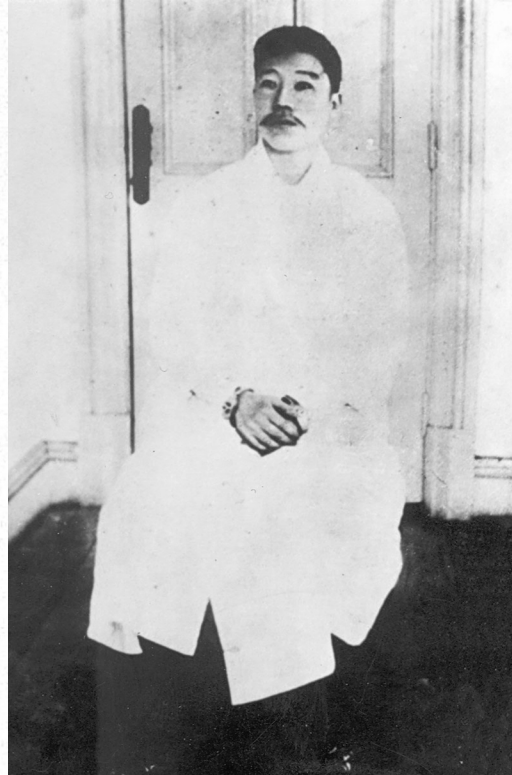
독립기념관에서는 지난 3월 26일, 안중근 의사 순국 101주년을 기념하여 안 의사가 직접 쓴 글들을 모아 『안중근 문집』을 발간했다. 그동안 안중근 의사 전기 등 여러 종류의 관련 자료집이 간행된 적은 있으나, 안 의사가 직접 남긴 글을 모아 문집을 발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의사는 휘순감옥에서 하얼빈의거의 전말과 자신의 행적을 밝히는 『안응칠역사』를 저술하였고, 그의 동양평화에 대한 사상과 하얼빈의거의 경륜과 의미를 논술한 『동양평화론』을 저술하다가 완성하지 못하고 순국하였다. 아울러 현재까지 밝혀진 59점의 유물을 남겼고 그 외에도 진귀한 필적과 시문, 친필혈서, 간찰과 유서도 남겼다. 이 자료집에서는 원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중 한문이나 외국어로 된 자료는 번역과 주해를 하였다.

상기 문집내용 중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론을 집필하기 위하여 한 달

남짓 사형집행 날짜를 늦추어 달라고 당시  
 휘순법원의 최고책임자인 히라이시 우지  
 히토[平石氏] 고등법원장에게 요구한 내  
 용과, 히라이시가 안 의사에게 거짓으로  
 약속하고 이를 안 의사의 공소포기용으로  
 이용한 내용 등이다. 결국 안중근 의사는  
 일제의 위약으로 동양평화론을 완성하지  
 못한 채 순국하였다.

또한 법원과 감옥의 일본 관리들이 안  
 중근 의사의 글을 얻고자 종이와 비단 수  
 백 장을 안중근 의사에게 보내어,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매일 몇 시간씩 글씨를  
 썼다는 내용도 눈에 띄며, 동생 공근에게  
 오직 학문을 연구하라는 내용의 서한과 어  
 머니에게 자신의 아들인 분도가 장차 신부  
 가 될 수 있도록 키워달라고 부탁하는 유  
 서도 있다.



이번 문집은 인하대학교 윤병석 명예교수의 편역(編譯)으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  
 제28집으로 발간되며, 이번 안중근문집의 편역을 맡았던 인하대학교 윤병석 명예교수는 “이번에  
 발간된 안중근문집은 민족정기의 사표인 안 의사의 평화사상과 행적, 그리고 의열투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며 앞으로 추진할 안중근의사전집 편찬의 기초 작업이라는데 의의가 있  
 다”고 말했다. ㉞

##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1년 3월, 4월 회비납부자 명단 ◆

회원명	3월	4월	회원명	3월	4월	회원명	3월	4월
(사유정조동호선생기념사업회)	10,000		백영미	10,000	10,000	정희(장두영으로 발행)	20,000	20,000
강만길	20,000		변병식	100,000	100,000	전창일	20,000	20,000
강재욱	20,000	20,000	서영훈	30,000	30,000	정동익	30,000	30,000
공성진	30,000	30,000	서홍관	30,000	30,000	정만기	30,000	30,000
곽태원		100,000	성인제약(주)	100,000	100,000	정범구	30,000	30,000
권상윤	10,000	10,000	송재웅	30,000	10,000	정재경	10,000	10,000
권순갑	20,000	20,000	신명식	10,000	10,000	정철승	30,000	30,000
권영관	10,000	10,000	신영연	10,000	10,000	정환기	10,000	10,000
길사원	10,000	10,000	신영한	10,000		조기식	10,000	
김경애	10,000	10,000	신준수	20,000	20,000	조명숙	10,000	10,000
김광림	30,000	30,000	심재권	30,000	30,000	조세현	20,000	20,000
김광재	5,000	5,000	안영찬	5,000	5,000	조영빈		5,000
김동현	10,000	10,000	양인선	10,000	10,000	조용준	30,000	30,000
김보성	10,000	10,000	양진호	10,000	10,000	조용환	30,000	30,000
김봉현	30,000	30,000	엄기남	50,000	50,000	조인형	10,000	10,000
김선군	10,000	10,000	염승훈	10,000	10,000	조정훈	30,000	30,000
김성곤	10,000	10,000	오승숙	10,000	10,000	조회환	10,000	10,000
김성록	10,000	10,000	오영은	30,000	30,000	주석열	10,000	20,000
김숙정	50,000	50,000	오은주	20,000	2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연실	10,000	10,000	오정수	20,000	20,000	주철기	30,000	30,000
김영림		60,000	오화수	20,000	20,000	차창석	10,000	10,000
김용덕	10,000		우상호	30,000	30,000	천정배	10,000	10,000
김원규	10,000	10,000	원영애	30,000		최낙현	20,000	20,000
김 위	20,000	20,000	유기수	10,000	10,000	최문소	10,000	10,000
김위현	50,000	50,000	유은숙	10,000	10,000	최병욱	10,000	10,000
김자동	100,000	100,000	유원목	10,000	20,000	최영진	10,000	10,000
김재철(김우석으로 발행)	100,000	200,000	윤영옥	10,000	10,000	최정식	10,000	
김재홍	10,000	10,000	윤한옥	10,000	10,000	함세웅	30,000	30,000
김정인		10,000	이규중	30,000	30,000	홍순권	10,000	10,000
김정욱	50,000	50,000	이규호	30,000	30,000	황용만	205,000	5,000
김중배	20,000	20,000	이두엽	20,000	20,000			
김중숙	10,000	10,000	이두희	30,000	30,000			
김진경	5,000	5,000	이병규	10,000	10,000			
김진모	20,000	20,000	이상준	200,000	200,000			
김진영	10,000	10,000	이상훈	10,000	10,000			
김진현	50,000	50,000	이성배	10,000	10,000			
김판수	5,000	5,000	이수원	20,000				
김학근	10,000	10,000	이영국	10,000				
김호진	10,000	10,000	이영후	30,000	30,000			
김희선	10,000	10,000	이용규	10,000				
남만우	30,000	30,000	이우재	10,000	10,000			
노사선	30,000	30,000	이원혁	100,000	100,000			
류동연	5,000	5,000	이응국	5,000	5,000			
류시경	30,000	30,000	이일선	30,000	30,000			
문재선	30,000		이재선	5,000	5,000			
민향선	10,000	10,000	이정재	50,000	50,000			
박경국	10,000	10,000	이종락	30,000	30,000			
박복삼	10,000	10,000	이중찬	100,000	100,000			
박두곤	10,000	20,000	이창복	20,000				
박아영	10,000	10,000	이창중	20,000	20,000			
박양수	10,000	10,000	이학효	10,000	10,000			
박원표	50,000	50,000	이항중	30,000	3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해준	20,000	20,000			
박의란	30,000	30,000	이해숙	10,000	10,000			
박인석	10,000	10,000	이호헌	20,000	20,000			
박정근	30,000	30,000	임삼조	10,000	10,000			
박형순	10,000	10,000	임진택	5,000	5,000			
반병률		10,000	장은기	20,000	20,000			
백낙청	10,000	10,000	장팔순	10,000	70,000			

#### 2011년 3월, 4월 기념관회비

회원명	3월	4월
차영조	10,000	10,000
최기창	10,000	10,000
유중하	10,000	10,000

#### 2011년 3월, 4월 특별회비

회원명	3월	4월
(주)오도 오토모	6,000,000	6,000,000
(주)아팩철강	2,000,000	2,000,000
신복룡	100,000	
채현국	200,000	
황원섭	100,000	



**(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우)110-101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빌딩 305호  
 TEL (02) 3210-0411, 3210~0422 FAX (02) 732-2870  
 E-mail kpg1919@korea.com http://www.kopogo.com

◆ **입회원서** ◆

이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택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소			
직업		소속	
비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출금시작월	(    )월
납부금액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4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20만원 <input type="checkbox"/>		
	자유지정금액 <input type="checkbox"/> (    원)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